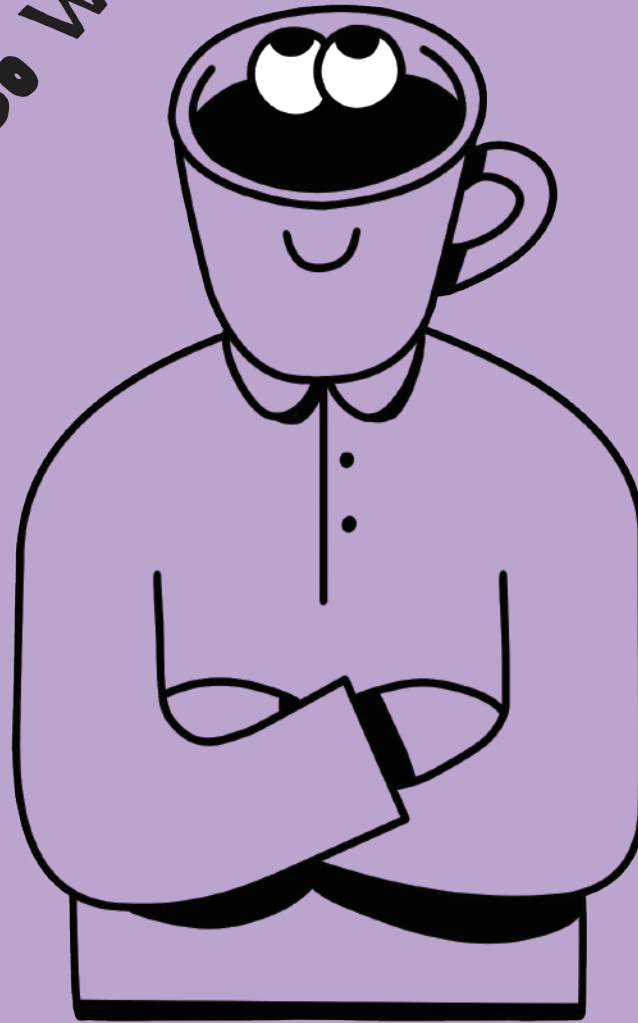


2024.
July
vol.467

—
올바른 길에
대한 고집

So wha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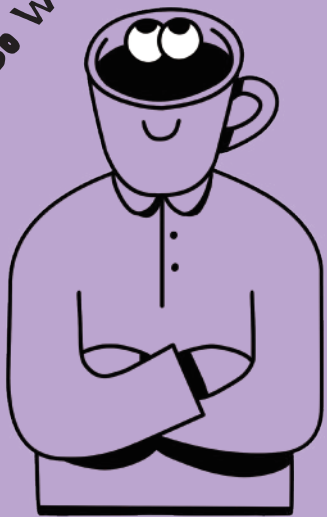
07
중심



with IBK
I B K M A G A Z I N 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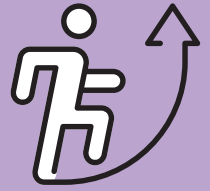
Balance

So What~



매일 흐르는
삶에서

균형을 잃지
않는 법



지금 서 있는 곳에서
나를 잃지 않고
나아가게 하는 힘

IBK가 존재하는 이유

Contents

2024. July
vol.467

내면의 힘(력力)을 더하고
서로의 마음(심心)을 나누는
IBK 시너지, 일곱 번째

중심



IBK사보를
웹진으로 만나보세요

with IBK
IBK MAGAZINE

발행일 | 2024년 7월 1일
발행인 | 은행장 김성태
편집인 | 김태경
편집위원 | 이명환, 정누리
발행처 | 브랜드전략부
편집·디자인 | 더에이치(주)

* 외부 필자의 원고는 <with IBK>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with IBK>에 실린 모든 글과 그림, 사진은
무단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08

에세이

우리의 마음은 우리가 자주 품는 생각으로
물들기 마련이다

10

IBK 양케이트

일과의 중심!
점심시간을 알차게 보내는 나만의 방법은?

18

타인의 생각

인생에도
부력이 필요하다

24

IBK가 만나다

때론 진부한 것이 우릴 멀리 데려다줘요
배우 이주승

30

체크리스트

나만큼 너를 생각해!
나의 이타심 지수는?

32

IBK뜨끼

닭백숙으로 몸보신? 완전 럭키 뜨끼잖아!
⑦ 전라도 편_별천지

38

그곳에 가면(국내)

여수 밤바다의 낭만을 완성하는 섬
여수 돌산도

44

그곳에 가면(해외)

서핑, 고래, 왕국을 간직한 '스펙터클 하와이'
마우이



50

IBK산 ⑦

비가 오면 비를 맞고 가는 거지, 하하
화끈했던 금수산 빗속 산행기

58

IBK버킷리스트

뜨거운 여름을 시원하게 즐기는 캠핑
낭만으로 가득했던 우리의 시간

64

IBK동호동락

취향의 교집합을 이뤄 마음과 일상을 수놓는 선물
IBK동호회 'IBK WE ARE'

70

그때 그날 한 컷

7월에 일어난
이야기

72

헬스 케어

잘 바른 선크림,
열 피부과 안 부럽다!

74

요즘, 시선

여름을 더 고유하게 즐기는
휴가 트렌드

78

IBK 히어로

소통·정보·서비스, 삼박자를 고루 갖추다
서귀포지점

88

히든챔피언

스마트한 공장관리, (주)시즐의 솔루션으로 해결하세요
(주)시즐 이지현 대표



94

당신의 품격

먹을 갈고 글씨 쓰며 마음을 닦다
그윽한 목향을 닦은 삶

100

창공, 날다

꿈임없이 성장하는 IBK창공 기업
스텔라뮤직, 애쓰지마, 클레브레인, 잉클

106

잡학 사전

면이 먼저냐, 스프가 먼저냐!
맛있는 라면 먹으려면?

108

우리말 한 걸음

"수고하세요"라는 말,
실례일까요?

110

HOT Issue

뜨거운 여름날의 청량한 즐거움!
입크페스티벌

112

IBK뉴스

IBK기업은행
주요 소식

114

이달의 이벤트

다른 그림 찾기/
표지 캐릭터를 찾아라

117

부록

맛있는 여름 과일을 잡아라!
이것만 알면 200% 성공



“우리의 마음은 우리가 자주 품는 생각으로 물들기 마련이다.”
-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로마 황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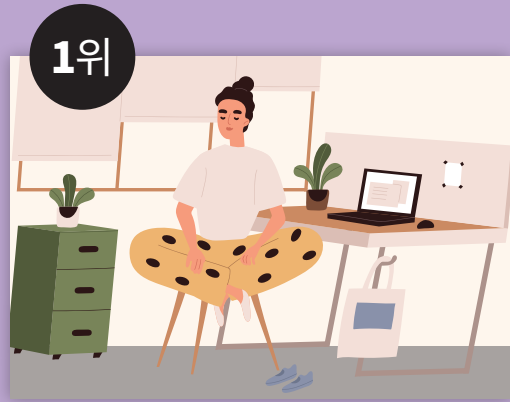
나 자신이 희미해 보일 때
소용돌이치는 감정에 흔들릴 때
평소 되고 싶던 나의 모습을 떠올려보세요.

중심을 잡고 자신에게 집중한다면
진정 원하던 본인의 모습을 찾는데
더 많은 시간을 nyer낼 수 있을 거예요.

일과의 중심!

점심시간을 알차게 보내는 나만의 방법은?

오전 3시간, 오후 5시간을 견디게 해주는 시간, 점심시간!
9 to 6를 보내고 있는 직장인들에게 점심시간은 작지만 소중한
시간일 것이다. 이렇게 귀한 점심시간에 IBK인들은 무엇을 하며
보낼까? 점심시간을 알차게 보내는 방법에 관해 물었다.



1위
오롯이 나 혼자 즐기는 힐링 타임! **45.8%**

점심시간 = 힐링 타임! 달디 달고 달디 단 꿀잠을 자기도 하고, 10분 명상을 하며 머리를 식히기도 하고, 좋아하는 유튜브를 보며 여유롭게 점심을 즐기는 등 많은 IBK인들이 점심시간을 활용해 각자의 힐링 포인트로 재충전의 시간을 가진다고 답했다. 사무실에서 혼자 시간을 보내는 동료들 본다면 부르지 말 것!

#나만의_힐링 #낮잠_자기 #좋아하는_유튜브 #노래_감상



2위
일과 중 가장 여유로운 시간, 산책! **31.4%**

점심시간엔 무조건 사무실 밖으로! 일과 중 가장 여유로운 시간을 더 여유롭게 보내는 방법은 단연코 산책이 아닐까! 각자의 지점에서 가장 가까운 공원 또는 산책 스폿을 찾아 혼자 또는 동료들과 함께 산책하며 점심시간을 만끽하는 IBK인들도 많았다. 점심 먹고, 커피 한 잔 들고, 시원한 바람 맞으며 산책한다면 에너지 충전 완료!

#공원_산책 #꽃_구경 #동료와_수다 #스트레칭



3위
나는 매일 성장한다, 자기 계발! **14.5%**

시간은 금이다! 점심시간에도 커리어와 자기 계발을 위해 시간을 투자하는 IBK인들도 많았다. 사무실 근처 헬스장으로 운동을 하러 가거나 평소 관심 있는 분야의 책을 읽거나 미국 여행을 위해 영어 공부를 하는 등 자신의 성장을 위해서 자투리 시간을 잘 활용하고 있는 IBK인들! 아주 칭찬해~!

#오운완 #독서_타임 #필사 #영어_공부



4위
점심시간엔 밥이 우선! **8.3%**

점심시간이면 말 그대로 점심을 위한 시간 아닙니까? 점심시간이니 밥에 진심을 보여준 IBK인들도 있었다. 점심시간 30분 전, 신중하게 메뉴를 선정해 예약한 후 도착하자마자 음식이 나올 수 있도록 하는 이 철저함! 또 직접 주방에서 직접 요리를 하거나, 맛집 탐방을 계획하는 준비성까지! 오후를 잘 버티려면 밥심이 필요한 법!

#맛집_탐방 #맛있는_음식 #요리하기 #밥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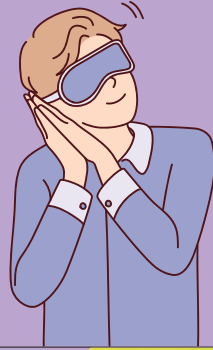
Lunch

Time



점심시간 30분 전 메뉴를 선정해 해당 매장에 웨이팅을 겁니다. 덕분에 앉자마자 식사를 할 수 있고 2차 커피타임도 가질 수 있습니다 #상무지점 박준

단 10분이라도! 탈의실에서 낮잠 자기~ 짧은 잠이지만 정말 세상에서 제일 달콤해요~~^^ #포항지점 이선진



점심시간도 바쁘다 바빠 현대사회! 밀렸던 답장도 하고, 뉴스도 보고, 축구 경기 하이라이트도 보고...! 1시간 너무 짧아요... #녹산공단기업금융지점 강동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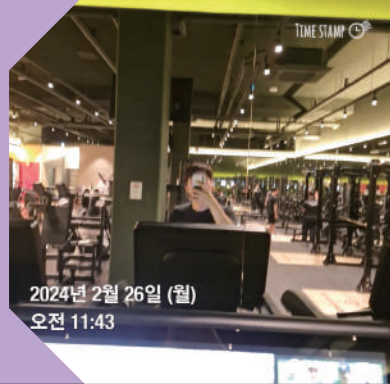
운 좋게 집 인근 지점으로 발령을 받아서 아이하고 시간에 맞춰 점심시간 되자마자 쾌속 걸기 10분! 아이와 간단히 간식 및 점심을 먹고 학원 데려다주고 지점으로 쾌속 걸기 10분! 이렇게 한 시간 알차게 쓰면 아이도 행복하고 저도 행복합니다! #테헤란로중앙지점 김상경



동료들과 점심 먹고 지점 앞 승례온 한 바퀴 돌면서 산책합니다. 저희 남대문지점 경치 멋지죠? #남대문지점 고인실



운동을 합니다. 상쾌하게 오후를 시작할 수 있어요. #춘의테크노지점 박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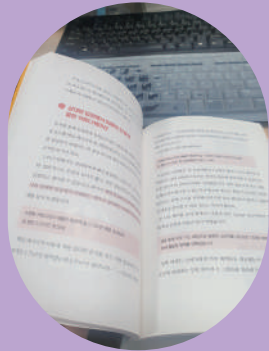


자리에 앉아서 이어폰을 착용한 후 명상 영상을 틀어 가이드에 따라 10분 정도 명상을 합니다. #IBK고객센터 임종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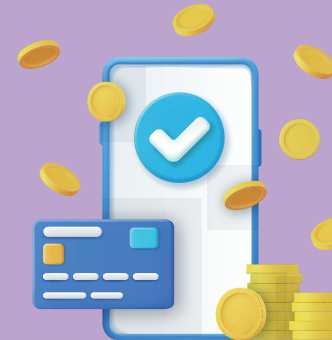
점심은 도시락으로 후딱! 먹고 바~로 한강 산책! 한강 인접 지점의 장점이네요. #동부이촌동WM센터 구슬이

자기 발전을 위한 독서 타임으로 사용합니다. #IT기획부 이승환



읽고 싶은 소설책을 읽으면서 힐링 타임을 가집니다~ #금사공단지점 김동우

내일 아침 우리 아이 뭘 해줄까 쿠팡 폭풍 쇼핑ㅋ #보라매지점 이경희



점심 먹고 산책하며 꽃 사진 찍고 꽃향기 맡으며 산책하기! 시화중앙지점 장미꽃 정말 예뻐요^^ #시화중앙지점 이유라



밥 먹고 커피 마시고 산책해요. #안전관리실 차재원



양재천 인근 지점이라 양재천을 산책합니다. 열심히 운동 중입니다^^. #양재동지점 한완수



저희는 주차장이 바로 앞에 있어서 점심 먹고 시간이 남으면 세차를 합니다. 지저분한 차보단 깨끗한 차가 훨씬 좋으니까요! #남동2단지지점 장수정



탈의실에서 샐러드 시켜 먹고, 에어팟 끼고 이북 리더기로 잠 내서 독서하기~~^^ #김포지점 국나영



밥 빨리 먹고 산책하기 ㅎㅎ

#시화공단지점 정윤경



식사 전 타바타로 20분간 운동합니다!

#마산내서지점 이상욱



달달한 커피나 음료 한 잔 마시면서 좋아하는 노래 감상하기

#수원고색지점 홍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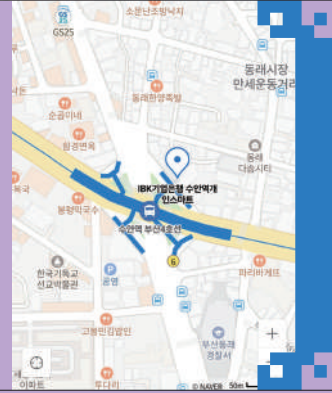
직원들과 신나게 수다 떨고, 지점 가까운 공원을 바퀴 돌려 광합성도 하고, 파란 하늘도 올려다보고, 앉아만 있어 쭈뼛뚱했던 몸도 스트레칭하며 알차게 보내고 있습니다!
#명학지점 정수경



롯데타워를 바라보며 공원 산책하기~~

#송파지점 김민지

저는 점심시간에 앱을 해요! 최근엔 과일도 공짜로 먹었다니까요.



지점장님과 지점 주변 맛집 검색하여 맛있는 점심도 먹고, 우량 소상공인(음식점업) 고객발굴도 합니다.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인근 음식점 섭외 중!!!
#수안역개인스마트지점 이정우



밥 먹고 산책

#담십리지점 노은진

오늘 할 일의 체크리스트를 작성하고 하나씩 체크하며 놓친 건 없는지 확인도 하고 퇴근하고 못 봤던 TV 프로그램도 보면서 마음에 여유를 가지려고 노력해요.
#김포지점 이혜민



제일 웃긴 유튜브를 보며 기분을 up 시킨다. 공부왕찐천재, 유브이방 강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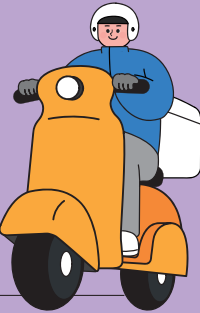
#강남역지점 최아영



집에서 평소 읽고 싶었던 책을 가져와 읽습니다. 최근에는 인테리어에 관심이 생겨서 해당 분야의 책을 읽고 있어요~
#순천향대서울병원출장소 이지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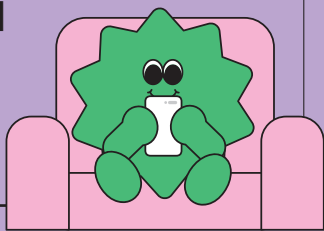


배달을 희망하는 직원들끼리 같이 맛집에서 점심을 주문해요. 배송료와 시간 절약은 덤! 편하게 맛있는 점심을 즐긴 뒤, 남은 시간은 오후 업무를 위해 휴식하거나 커피 한 잔의 여유를 가져요~
#강남대로지점 주하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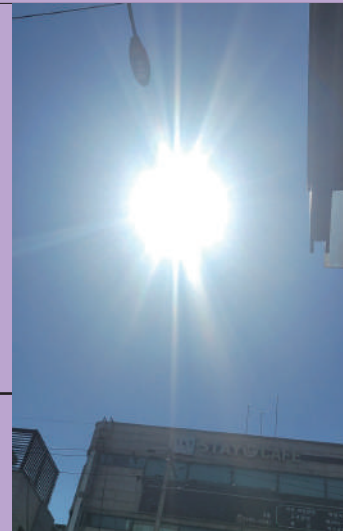


불 끄고 소파에 대자로 누워서 자기. 대신증권 5층에서 일광욕~

#인프라금융부 김남영



지점 지하에 주방이 있어 먹고 싶은 음식을 요리해서 맛있게 먹고 있습니다!
#서초남지점 임현아



부족한 비타민D 보충을 위하여 태양을 피하지 않으면서 카페인 섭취를 하려 한다. 내 몸은 소중한고, 나의 시간도 소중한니까...
#역곡지점 양정인

휴식, 재충전~~

#창원카드영업센터 임강현



**사내 식당에서
맛있고 신속하게
점심을 먹고 여자
휴게실에서 낮잠을
자요! 낮잠용
이불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금사공단지점 김혜민

월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점심	김치찌개, 갈비탕, 감자탕, 닭볶음탕, 떡볶이, 떡갈떡볶이, 떡볶이, 떡갈떡볶이, 떡볶이, 떡갈떡볶이	김치찌개, 갈비탕, 감자탕, 닭볶음탕, 떡볶이, 떡갈떡볶이, 떡볶이, 떡갈떡볶이, 떡볶이, 떡갈떡볶이	김치찌개, 갈비탕, 감자탕, 닭볶음탕, 떡볶이, 떡갈떡볶이, 떡볶이, 떡갈떡볶이, 떡볶이, 떡갈떡볶이	김치찌개, 갈비탕, 감자탕, 닭볶음탕, 떡볶이, 떡갈떡볶이, 떡볶이, 떡갈떡볶이, 떡볶이, 떡갈떡볶이	김치찌개, 갈비탕, 감자탕, 닭볶음탕, 떡볶이, 떡갈떡볶이, 떡볶이, 떡갈떡볶이, 떡볶이, 떡갈떡볶이	김치찌개, 갈비탕, 감자탕, 닭볶음탕, 떡볶이, 떡갈떡볶이, 떡볶이, 떡갈떡볶이, 떡볶이, 떡갈떡볶이	김치찌개, 갈비탕, 감자탕, 닭볶음탕, 떡볶이, 떡갈떡볶이, 떡볶이, 떡갈떡볶이, 떡볶이, 떡갈떡볶이
간식	사과, 바나나, 사과, 바나나, 사과, 바나나, 사과, 바나나, 사과, 바나나, 사과, 바나나, 사과, 바나나, 사과, 바나나, 사과, 바나나	사과, 바나나, 사과, 바나나, 사과, 바나나, 사과, 바나나, 사과, 바나나, 사과, 바나나, 사과, 바나나, 사과, 바나나, 사과, 바나나	사과, 바나나, 사과, 바나나, 사과, 바나나, 사과, 바나나, 사과, 바나나, 사과, 바나나, 사과, 바나나, 사과, 바나나, 사과, 바나나	사과, 바나나, 사과, 바나나, 사과, 바나나, 사과, 바나나, 사과, 바나나, 사과, 바나나, 사과, 바나나, 사과, 바나나, 사과, 바나나	사과, 바나나, 사과, 바나나, 사과, 바나나, 사과, 바나나, 사과, 바나나, 사과, 바나나, 사과, 바나나, 사과, 바나나, 사과, 바나나	사과, 바나나, 사과, 바나나, 사과, 바나나, 사과, 바나나, 사과, 바나나, 사과, 바나나, 사과, 바나나, 사과, 바나나, 사과, 바나나	사과, 바나나, 사과, 바나나, 사과, 바나나, 사과, 바나나, 사과, 바나나, 사과, 바나나, 사과, 바나나, 사과, 바나나, 사과, 바나나

**산책하면서
혈당 스파이크 낮추기!
지점분들과
똥자리 깔고
양재천 피크닉!**
#양재동지점 김은빈



**주변이 논밭인
우리 지점.
하지만 점심시간,
식당에 가면서 예쁜
꽃들을 구경하는
재미가 있어요~**
#발안산단지점 한정아



**밥을 야무지게 먹고
커피 살 겸 산책하기!
그리고 달콤한 10분의
낮잠 시간!**
#대저동지점 윤지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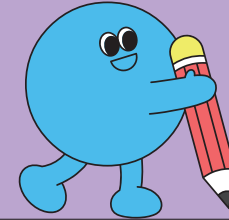


**단 10분이라도!
하늘 보며,
바람을 느낍니다.
힐링 산책은
필수죠^^**
#죽전지점 정영미



**점심 식사 후 부모님과
사부모님께 전화합니다.
딱히 할 말이 없어도
“식사하셨어요?”로도 대화가
이어지니 좋은 것 같아요.
모두 부모님께 잘하자구용!
왓팅!**
#프로세스혁신부 안미라

**요즘 취미활동으로 글쓰기 공부를 하고 있어요!
퇴근하고는 너무 피곤해서 점심시간을 활용해
필사를 하고 있습니다!
바쁜 오전을 정리해 주고
오후를 베타는 힘이 되고
아주 좋아요~**



**점심을 간단하게 먹고
근처 헬스장으로 운동하러 갑니다!!!
점심시간에
짱 내서
오운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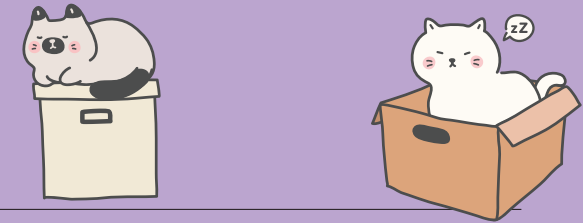
**유튜브를 시청하면서 밥을
먹고, 지점 근처 산책하면서
오후 시간을 위한 커피도 한 잔
테이크아웃 한다.
근처 대형마트도 잠깐 들린 후,
호다닥 빠른 걸음으로 복귀 ㅋㅋ**
#정관지점 표정화

**미리 비대면 웨이팅 걸어놓고
음식점 가기, 커피 마시면서
주변 거리나 공원에서 광합성 하기!
계절 꽃 관찰하기도 좋아요!**
#여의도IFC지점 김이린



**저희 직업 특성상 오랜 시간 앉아
있어야 하다 보니 소화도 잘 안되고
몸이 뻐근해지는 경우가 많은데
점심시간을 이용해 산책하면 기분도
상쾌해지고 소화도 잘된답니다! 예쁜
풍경들을 감상할 수 있는 건 덤이죠!**
#칠곡지점 최유림

**근처 공원에 살고 있는
고양이들이랑 놀기.
아주 확실한 행복...**



**미국 여행을 위해 영어공부!!!
점심시간을 활용해서 열심히
영어 단어 공부하고 있습니다!**



**지점 발령받은 후 고객님과의 유대관계 및 공감대
형성을 위해 점심시간에 지점 근처를 산책하며
고객님들이 사시는 동네 위치와 분위기를 파악해요!**
#수지동천역지점 김민정



**점심 식사 간단히 하고 지점장님 및
직원들과 안양천 산책하며
힐링하기~^^!!!**
#가산테크노지점 최성희



**오전에 정신없이 일을 하다 보면
어느새 더러워진 내 책상.
도시락 먹고 책상 청소하면 기분이 쏙드요**



인생에도 부력이 필요하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누구나 짊어져야 하는 것들이 있다. 그 무게를 가볍게 만들기 위해선 내 마음에 집중해야 한다. 버거운 삶의 무게를 줄여줄 사소하지만 소중한 부력들에 대하여.



나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면 혼자 있을 때 불안하지 않을 수 있고, 타인과 함께할 때 자기중심을 지킬 수 있다.



Balance

기분에 잠식되지 않는 방법

프리랜서 생활 10년 차다. 회사를 뒤로하고 당당히 걸어 나오던 때, 나는 뭐든 잘할 줄 알았다. 그런데 실상은 종일 소파와 한 몸이 되어서 미래만 걱정하는 신세였다. 회사 밖에서의 나는 나조차도 종잡을 수 없었다. 어떤 날은 괜찮다가 또 어떤 날은 이유 없이 기분이 우울했고, 그냥 내가 미웠다. 그런 날은 미래에 대한 걱정과 불안에 휩싸였고, 누군가와 비교하며 나를 깎아내렸다. 며칠 그렇게 지내다 보면 우연한 계기로 조금씩 에너지가 차오를 때도 있었는데, 마음의 불씨를 태우다가도 또 별다른 이유 없이 의지가 꺾였다.

하지만 직장생활 하던 때와 비교하면 일상은 매우 평온했다. 상사 눈치 볼 일도 없고, 마음이 맞지 않는 동료와 부딪힐 일도 없고, 울며 겨자 먹기로 하기 싫은 일을 해야 하는 것도 아니었고, 성과에 대한 압박이 있는 것도 아니었으니...

그렇다. 나를 괴롭히고 있는 건 그 누구도 아닌 바로 나 자신이었다. 회사 밖에 나오니 나 자신과 보내는 시간이 길어졌고, 타인과 함께할 때보다 더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그때 알았다. 나와 잘 지내는 건 타인과 잘 지내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일이라는 걸.

프리랜서로서 나 자신과 징글징글하게 긴 시간을 보내며 다투고 화해하면서 배운 게 있다면, 나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선 결국 나의 기분을 관리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게 나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면 혼자 있을 때 불안하지 않을 수 있고, 타인과 함께할 때 자기중심을 지킬 수 있다.

‘기분이 태도가 되지 않게’라는 말이 자주 들린다. 아마 기분을 좌지우지하는 요소는 하루에만 수천 가지는 될 거다. 기분에 지배당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불친절하게 대하고 삶을 불안하게 느끼지만, 기분을 관리하는 사람은 스스로를 다정하게 대하고 삶의 코어를 단단하게 만들어간다.

작고 소중한 행복을 늘려가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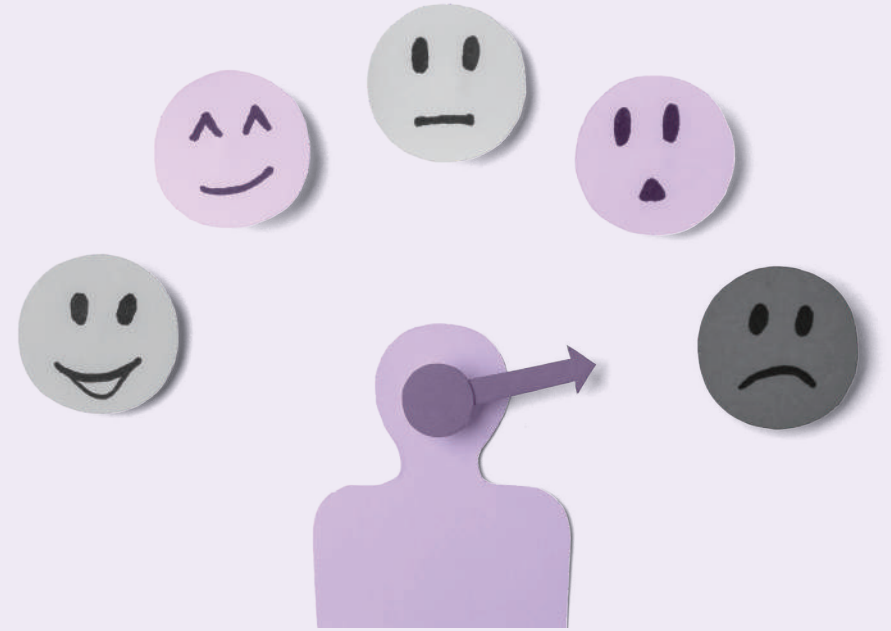
채워도 채워도 부족한 기분이 들 때가 있다. 일에서든, 관계에서든 끊임없이 내 역할과 능력을 보여주고 확인받는 것에 익숙하다 보니, 계속해서 내 안의 무언가를 꺼내놓아야 할 것 같다. 그걸 누군가의 칭찬으로 확인받으면 편안해진다.

허전하고 불안한 마음에 남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해야만 하는 것들을 잔뜩 떠안다 보면 어깨에 너무 많은 것을 짊어지게 된다. 결국 그 무게가 버거워지는 순간이 온다. 문제는 많은 사람이 삶의 무게에 짓눌릴 때 조금이라도 무게를 줄여 보려고 자기에게 소중한 것부터 먼저 내려놓는다는 것이다. 우리는 타인을 위한 것이나 책임져야 하는 것은 끝까지 짊어지면서도 나를 위한 것은 비교적 쉽게 내려놓는다. 당장은 짊어진 무게를 덜어내는 것 같지만, 그게 곧 삶의 부력을 없애는 일이라는 걸 모른다.

무라카미 하루키의 에세이 <랑겔한스섬의 오후>에서는 작지만 소중한 행복을 말한다. ‘갓 구운 따끈한 빵을 손으로 찢어 먹는 것’, ‘오후 햇빛에 나뭇잎 그림자가 진 것을 바라보며 브람스의 실내악을 듣는 것’, ‘면 냄새가 풍기는 새로 산 흰 셔츠를 머리에서부터 뒤집어쓰는 것’ 이것들은 아마 그의 삶의 무게를 줄여주는 부력이 되었을 것이다. 우리는 각자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으로부터 더 가볍고 유연하게 살아갈 힘을 얻는다. 나도 허전하고 불안한 마음이 들 땐 사소하면서도 소중한 것들에 집중한다. 밤늦게 조명 하나 켜놓고 음악 들으며 맥주 마시기, 하천 따라 자전거 타기, 가장 친한 친구와 전화로 수다 떨기, 책 읽다 발견한 마음에 드는 문장 필사하기. 사실 지친 삶을 일으켜 세우는 건 고작 이런 작은 것들이다. 누가 칭찬해주지 않아도 인생을 그 자체로 값지게 만들어주는 것은 작고 소중한 행복에서 나온다.



Small Happiness



누구에게나 완벽한 선택은 없지만 기분 좋은 선택은 있다. 기분 좋은 선택을 하고 편안한 마음을 가지면 삶의 방향키를 잡는 것이 보다 즐거워진다.

남들이 아닌 나에게 솔직한 선택

원손잡이라는 이유로 어릴 땐 어른들에게 참 많이 혼이 났다. 요즘은 왼손을 쓰는 것이 옛날보다 관대해졌지만, 왼손을 쓰면 훨씬 편한데도 어른들은 내게 오른손을 써야 하는 불편함을 강요했다. 살아보니 하기 싫지만, 타인의 강요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일들이 있다. 그런 일들에는 늘 내 필요에 의한 것이 아니었다는 데서 오는 괴로움이 따랐다. 일이 잘 풀리면 그 사람 덕분이고 잘 안되면 내 탓으로 돌아왔다. 상대는 흡족해하지만 정작 난 만족감은커녕 괴롭고 허탈해진다. 이런 마음을 잘 알기에, 상대와의 관계가 불편해질까 봐 나를 억압하는 불편을 선택하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최대한 나에게 솔직한 선택이 뭔지를 고민하고 따르려고 한다.

무엇이 후회 없는 선택일지, 환영받거나 대세를 따르는 선택일지, 고민이 되는 건 당연하다. 그러나 누구에게나 완벽한 선택은 없지만 기분 좋은 선택은 있다. 기분 좋은 선택을 하고 편안한 마음을 가지면 삶의 방향키를 잡는 것이 보다 즐거워진다.

그렇다면 강요받은 오른손잡이로 유년기를 보냈던 나는 완벽한 오른손잡이 어른이 됐을까? 굳이 아무도 궁금해하지 않겠지만 결과를 말해보자면, 상황에 따라 왼손과 오른손을 선택해서 사용하는 양손잡이가 됐다. 필기는 무조건 오른손이지만, 가위질은 무조건 왼손이다. 그게 가장 편하다. 더는 남을 만족시켜줄 선택이 아닌, 솔직하게 내가 편안하고 만족스러운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게 기분 좋다.

부족한 나를 다정하게 받아들여 줄 것

7살 딸과 보드게임을 할 때면 게임의 승패가 갈릴 때쯤, 자기가 질 거란 생각에 아이 눈에 눈물이 그렇그렇 맺힌다. 매번 보드게임만 하면 자꾸 엉엉 울며 짜증 내는 아이를 보면 순간 화가 올라오지만, 도를 닦는다는 마음으로 최대한 부드럽게 말해본다. “결과보다 중요한 게 과정이야. 게임에서 졌어도 우리가 다 같이 즐거웠으면 되는 거 아닐까?” 물론 이 한마디로 진정되지 않으니, “이럴 거면 다음부터 너랑 보드게임 안 할 거야!”로 상황이 종료되곤 하지만.

그런데 어느 날, 아이의 이런 모습에서 딱 내 모습이 겹치는 게 아닌가. 나 역시 내 노력에 비해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게 무척 힘들었다. 주어진 상황에서 내 모든 걸 퍼부어 최선을 다했고, 그에 따른 좋은 결과를 기대했다. 그랬기 때문에 기대에 못 미치는 결과에 우울했고, 스스로를 비난했다. 이게 반복되니 “아예 노력하지 않으면 실패도, 실망도 없겠지” 하는 마음이 슬며시 자리 잡았다. 이걸 깨닫는 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다. 내 아이도 이런 마음을 갖길 원치 않으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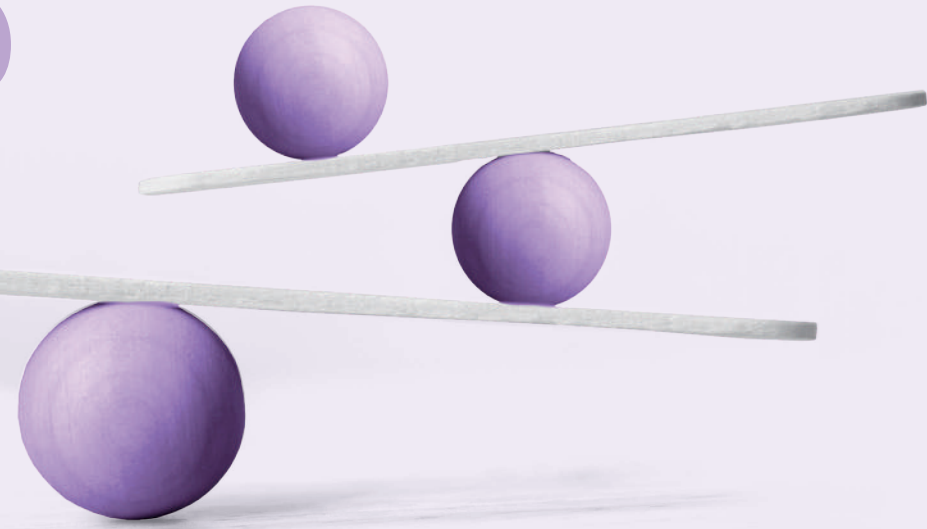
우리는 부족한 나를 다정하게 받아들이는 마음이 부족하다. 인생을 조금 편하게 살려면, 지금도 충분히 잘하고 있다고 격려해 주는 나를 자주 만나야 한다. 나 자신에게도 다정하고 좋은 친구가 되어주는 것이다. 나는 요리를 못하지만 가끔은 좋은 식재료로 나를 위한 요리를 한다. 운동을 좋아하진 않지만, 최소 주 3회는 꼭 운동하고 몸을 체크한다. 혼자 경치 좋은 카페에 가서 맛있는 커피와 디저트를 먹는다. 여기에는 내가 나를 소중하게 대접해준다는 마음이 깔려있다.

나를 대접하다 보면 나에 대한 다정함도 쌓인다. “그래, 많이 힘들었겠다”, “느리지만 한 발짝 댄 게 의미 있는 거야”, “이만큼 해낸 것도 참 대단해” 나에게 건네는 다정한 말이 늘어나면 실패가 노력의 배신이 아니라 그저 노력의 과정으로 여겨지게 된다.

우리는 부족한 나를
다정하게 받아들이는
마음이 부족하다. 인생을
조금 편하게 살려면,
지금도 충분히 잘하고
있다고 격려해 주는 나를
자주 만나야 한다.



Equanimity



내 삶의 중심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기를

나는 주위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며 그들의 작은 반응에도 초조해하던 사람이었다.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보일지 걱정돼, 내 삶에서 소중한 것들에 온전히 집중하지 못했다.

이런 내가 바뀐 결정적인 한 방은 매일 아침 30분씩 산책을 한 것이었다. 지금도 산책하지 않는 날은 왠지 모르게 축 가라앉은 기분이다. 산책으로 내 기분을 관리하기 시작하면서 나는 비로소 나 자신과 잘 지낼 방법을 늘려가게 됐다. 그 방법들 덕분에 흔들림 없이 안정감을 느끼며 내 삶의 중심을 지킬 수 있게 되었다.

누가 어떻게 보든, 뭐라고 하든 나의 본질에 집중하면서 무엇이 당신을 행복하게 하는지, 무엇이 당신을 나답게 만드는지 집중해보면 좋겠다. 그러다 보면 서서히 삶에 고단함의 무게는 줄어들고 소중한 것들은 더욱 늘어나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될 날이 올 테니까.



글. 김민영 작가

말하는 직업을 꿈꿨지만, 현재 쓰고, 말하고, 다른 이의 마음을 보듬는 작가, 강사, 컬러테라피스트로 활동하고 있다. 저서로는 <한눈파는 시간의 힘>, <삶의 무게를 줄이는 방법>이 있다.



Lee Juseung

때론 진부한 것이 우릴 멀리 데려다줘요

배우 이주승

꼭꼭 눌러 담은 말에 이 사람의 곳곳한 태도가 스며있다. 같은 말일지라도 확신이 있는 사람의 말이라면 그 말은 상대방을 변화시킨다. 이날은 이주승의 한마디가 그랬다.

Q. 안녕하세요! 먼저 이주승님의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배우 이주승입니다. 연극과 영화, 드라마, 예능 그리고 영화 연출까지 가리지 않고 도전하는 배우이자 계속 성장하기 위해 노력하는 배우입니다. 여러분 앞에서 연기할 수 있어 참 감사한 요즘입니다.

Q. 2008년 독립영화 ‘청계천의 개’로 데뷔하셨습니다. 배우를 꿈꾸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어릴 적부터 혼자 그림 그리고, 그 캐릭터를 연기하면서 놀았어요. 만화를 그리는 등 상상하는 것을 자주 즐겼죠. 그 과정에서 ‘무언가를 창조한다’라는 게 정말 흥미로운 일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사실 제가 배우를 꿈꾸기 전엔 태권도 선수를 꿈꿨어요. 하지만 중학교 3학년 때 사정이 생겨 꿈을 접게 됐죠. 그리고 운명처럼

연기를 접하게 됐습니다. 당시 연기 학원의 마케팅 방식이 “배우 해 볼 생각 없냐”라며 명함을 주는 거였는데, 제가 우연찮게 명함을 받게 됐고 그 계기로 연기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정말 운명 같은 만남이죠(웃음).

Q. 역할에 집중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역할에 매몰되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자신의 중심을 잘 잡아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필요한 마음가짐은 무엇인가요?

배우라는 직업은 활자 안에 있는 타인을 표현하는 직업이기에 자신이 건강하지 못하면 타인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저도 단단하지 못한 마음 탓에 방황도 하고, 힘든 시간도 보냈지만, 그 순간 또한 단단해지는 과정이라 생각하니 마음이 편해졌어요. 제가 여러 방향 끝에 얻은 가장 좋은 마음가짐은 나의 상태를 인정하는 것이에요. 내가 기쁠 때, 슬플 때,



화날 때 등 여러 감정과 상황을 인정하는 순간 극복할 수 있는 희망이 움트거든요. 바퀴호 스피노자가 한 말 중 제가 좋아하는 말이 있어요. “Fear cannot be without hope nor hope without fear”로, 해석하면 “두려움은 희망 없이 있을 수 없고, 희망은 두려움 없이 있을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처럼 중심을 잘 잡으려면 두려움 안에서 희망을 찾아내고, 맞서 싸울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Q. 일을 하다 보면 힘든 순간도 있지만 성취감을 느끼는 순간도 있습니다. 연기를 하면서 가장 보람차고 즐거웠던 순간은 언제인가요.

연기를 시작한 후로 저 스스로 약속한 게 있습니다. 바로 매년 연극을 한 편씩 올리는 건데요. 올해로 7년째, 그 약속을 지키고 있습니다. 업계에서 영화는 편집예술, 드라마는 작가

예술, 연극은 배우예술이라는 말을 많이 해요. 그래서 저는 연극을 통해 끊임없이 고뇌하고 훈련한 장면을 관객에게 잘 전달했을 때 정말 큰 성취감을 느낍니다. 특히 작년에 2인극 <테베랜드>를 잘 마무리했을 때 정말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Q. 최근 <나 혼자 산다>를 통해 업계 불황을 언급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시기를 자기 발전의 시간으로 활용하고 계신다고요. 불안을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세요.

앞서 말한 것처럼 두려움 안에서 희망의 씨앗을 찾아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보면 배우라는 직업은 계속해서 타인과 나를 융합시켜 새로운 인물을 창조해내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제대로 가꾸지 않으면 그만큼 인물과 융합하기 힘들어요. 저도 사람이기에 나타해질 때도 있고, 연기를 하면서

이주승 배우가 <with IBK> 독자들에게 전하는 메시지

안녕하세요! 지금까지 저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인터뷰가 여러분 마음속 작은 창문이 되어 여러분의 답답한 마음을 환기시켜주길 바랍니다. 점점 더워지는 날씨, 어디에도 매몰되지 마시고, 스스로만의 기준을 세워 항상 즐겁고, 흔들리지 않는 나날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나의 경험에 갇히지 않고 액체 같은 배우가 되는 것. 그것이 저의 철학입니다.



권태를 느낄 때도 있어요. 그래서 모든 일엔 휴식이 필요하고 자기 계발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요즘, 업계 불황이라는 말이 있는데 저는 역할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연인 같은 ‘만남’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엔 자기 자신이 성장하지 않으면 좋은 연인을 못 만나는 것처럼 연기로써가 아닌 사람으로서 성장을 위해 달려 나간다면 좋은 만남(역할)을 갖게 될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인생을 성공과 실패로 보지 않고, 성공 아니면 포기라고 봐요. 포기하면 실패하는 것이고 포기하지 않으면 어떻게든 성공을 맞출 수 있을 것입니다.

Q. 배우님만의 연기 철학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결국 배우는 전달자입니다. 작품이 주는 메시지를 최대한 잘 전달하고, 그 메시지 안에 그 배역이 가지고 있는 의도를 명확히 전달하는 것이 최고의 배우가 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에는 아직 만나지 못한 사람도 많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마음도 많습니다. 내가 경험한 생각에 갇히지 않는 것이 저의 철학이라 할 수 있겠네요. 더 쉽게 말하면 이소룡 배우의 말처럼 자신이 물이 되어서 주전자에 들어가면 주전자자가 되고, 그릇에 담기면 그릇이 될 수 있는, 나의 경험에 갇히지 않고 액체 같은 배우가 되는 것. 그것이 저의 철학입니다.

Q. 단편영화 <뚝대>를 통해 감독으로 관객들을 만나셨죠. 배우와 감독, 같은 계열처럼 보이지만 또 다른 도전이라 생각되는데요. 도전에 있어 두려움은 없었나요.

<뚝대> 전에 <혈안>이라는 작품을 만들었어요. 그 작품으로 감독의 시점을 경험한 후, <뚝대>를 찍게 됐습니다. 그래서인지 첫 번째 작품보다 <뚝대>를 조금 더 나은 생각과 마음으로



찍을 수 있었어요. 어떤 욕심에 사로잡혀 작품을 찍었다면 두려움이 컸을 테지만, 이 영화가 가진 메시지의 힘을 믿고 나아갔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었어요. 하지만 두려움이 아예 없었다면 거짓말이겠죠(웃음). <뚝대>가 로드 무비라 지방 촬영 때문에 예산이 초과할까 걱정을 많이 했어요. 하지만 JK필름 주승환 PD님께서 큰 도움을 주시고, 많은 스태프분들 그리고 이상희 배우를 비롯한 많은 배우들이 상황을 이해해주고 도와주신 덕분에 촬영을 잘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Q. 비연예인도 장소와 환경에 따라 여러 모습을 보이곤 합니다. 때문에 그 안에서 ‘진정한 나’란 무엇인지 고민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연기를 통해 다양한 역할을 경험해본 만큼 이런 분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정말 어려운 질문인 것 같아요. 음, 예전에 그런 말을 들었어요. ‘내 이름이 컵이라면 컵이 나일까. 그것은 이름일 뿐인데. 이름은 나를 편리하게 부르기 위한 것일 뿐인데.’ 그런 생각들을 하는 것 자체가 나를 찾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생각과 마음가짐을 그대로 기억하고 10년 전으로 돌아간다면 인생을 후회 없이 잘 살 자신이 있을까요? 아마 대부분 “자신 있다”라고 답하실 거예요. 큰 변화는 아니어도 지금보다 나은 자신을 만들고, 후회 없는 선택을 할 수 있을 테니까요. 그렇기에 나라는 것은 계속해서 경험과 의식을 통해서 성장하는 거라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떤 상황에서 어떤 모습을 보이든 모두 자신의 경험이 되고, 자신을 성장시키는 양분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그런 걱정에서 벗어나실 수 있을 거예요.



이주승 배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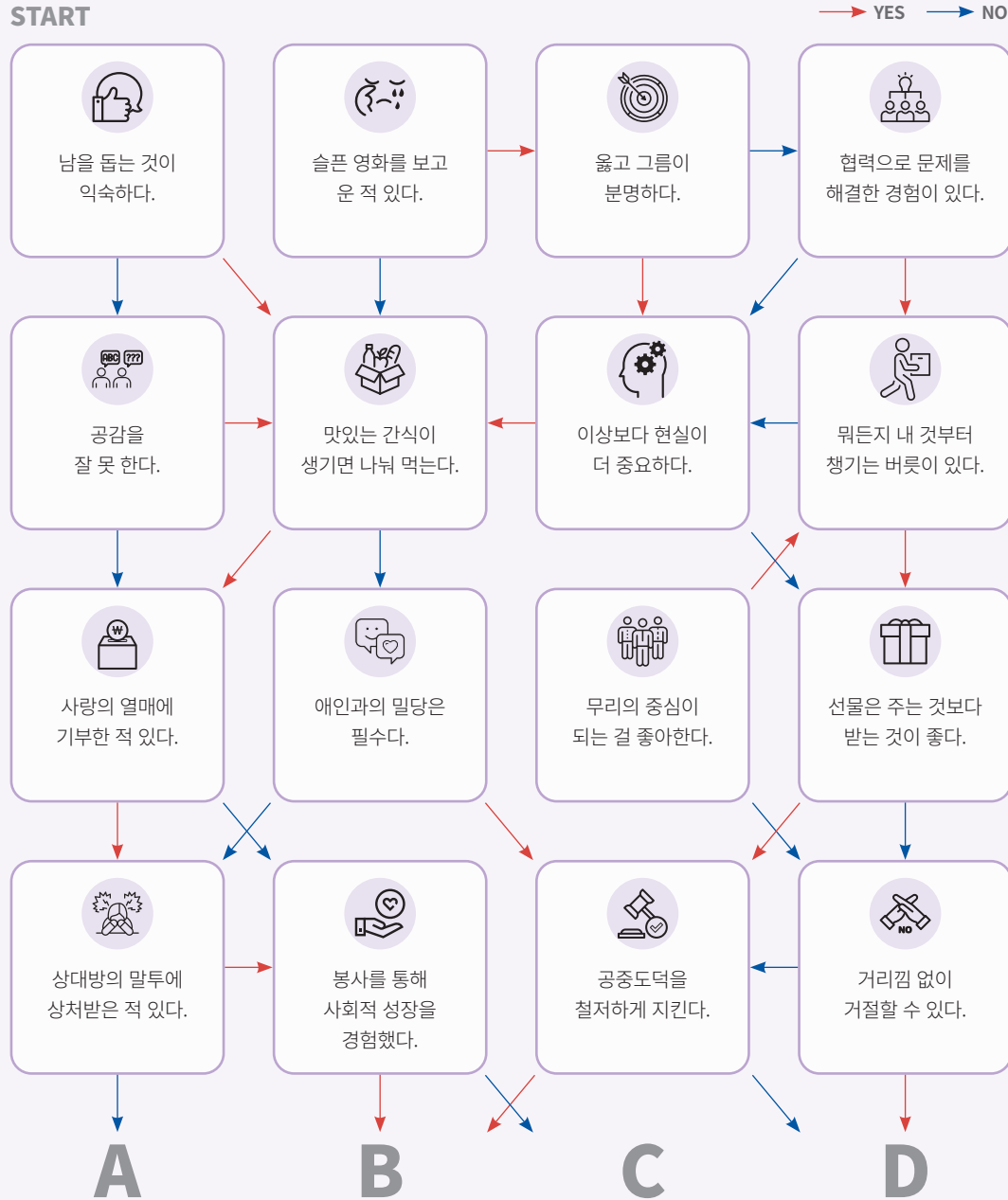
대한민국의 배우다. 2008년 독립영화 <청계천의 개>로 데뷔했다. 이후 다수의 영화, 드라마 등에 참여하며 탄탄한 필모그래피를 만들고 있으며, 감독으로서 <혈안>, <뚝대> 등을 제작해 대중 앞에 서기도 했다. 출연작으로는 <다우렌의 결혼>, <시민덕희>, <해피니스> 등이 있다.

Q. 이주승 배우님의 앞으로의 계획이 궁금합니다.

배우 활동을 하면서 틈틈이 글을 쓴 결과, 최근에 장편 영화 시나리오를 완성했습니다. 이 영화 또한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확실하기에 언젠가 관객분들에게 보여드리는 것이 가장 큰 계획이에요. 그리고 지금까지 연극, 영화, 드라마, 예능 등 다방면으로 활동해 여러분에게 큰 즐거움을 드리는 것도 저의 목표 중 하나입니다. 이주승의 앞으로를 기대해주세요.

나만큼 너를 생각해! 나의 이타심 지수는?

START



이기심과 이타심은 사실 동전의 양면과 같다. 나의 행복을 우선하는 사람이 다른 이의 행복도 챙겨줄 수 있기 때문! 나의 이타심 지수가 궁금하다면 지금 바로 테스트를 진행해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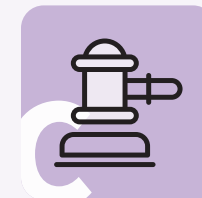
세상을 향한 애정이 넘치는 당신

마음이 따뜻하고 긍정적이며 매사 능동적인 사람이다. 그래서 평소 남을 잘 보살핀다는 칭찬을 많이 들어봤을 터. 사회문제와 주변에 관심이 많으며 자신이 도울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 항상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당신의 긍정 에너지를 더 많은 사람에게 전달한다면 지금보다 더 멋진 세상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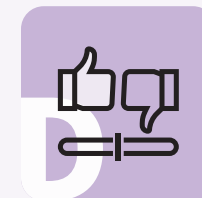
남을 돕는 것을 자기만족으로 여기는 당신

누군가를 돕는 일에서 자신의 가치를 발견하는 사람이다. 타인을 돕고 내가 도운 사람이 잘될 때 큰 기쁨을 느낀다. 여기에 “고맙다”라는 말까지 들으면 그날 당신은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일 터. 대가 없이 남을 돕는 당신의 태도 덕분에 오늘날 이 세상이 한층 더 아름다워졌다.



원리원칙을 명확히 지키는 당신

주어진 일을 완벽하게 해내며 좀처럼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다. 그래서인지 남에게 도움을 주고받는 일에 익숙하지 않다. 공공장소에서의 예의를 누구보다 충실히 지키는 당신! 엄격한 성향을 조금만 느슨하게 내려놓고 남을 배려하고 돕는 일을 실천한다면 당신은 누구보다 더 매력적인 사람이 될 것이다.



이기심과 이타심의 경계에 선 당신

내 사람이라고 여겨지는 가족과 친구에게는 누구보다 의리 있지만, 타인에게 도움을 줄 땐 꼭 손익을 계산한다. 손해 보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너무 실익만 따지다 보면 삶이 각박해지기에 다른 이를 살펴보는 배려심을 길러보자. 타인을 생각하는 마음이 당신에게 함께하는 즐거움을 선물할 것이다.



전라도 너무 더웠는데
담백숙으로 몸보신?

완전 럭키 트끼잖아!?

⑦ 전라도 편_별천지



QR코드를 스캔하면
<with IBK>를 영상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겨울에 시작한 IBK트끼가 봄을 지나
여름을 맞았다.
뜨거운 태양이 아스팔트를 달궂놓은
여름날, 전라남도 순천을 찾았다.
그곳에서 만난 IBK인들과 함께
뷰 좋고, 맛 좋은 곳에서 맛있는
보양식 한 그릇 똑딱!
여름은 이렇게 나는 것이지!

It's Health Food



IBK 호남지역 '먹잘알' 모였습니다

7번째 IBK삼끼는 아무 곳이나 들어가도 다 맛있다는 전라도! 그중에서도 순천을 찾았다. 어느새 반박에 안 남은 IBK삼끼에 아쉬움을 뒤로한 채 IBK삼끼 맛집 탐험가 MC 손민혁 님의 힘찬 인사로 시작한다. 과연 전라도 편에는 어떤 IBK인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기대를 안고 오늘의 맛집으로 향해본다. 맛집으로 가는 길에 쪽 늘어진 나무 그늘이 반겨주고 그 뒤로 사진 찍는 소리, 재잘재잘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린다. 누가 봐도 오늘의 주인공 IBK인들이다!

“입행한 지 1년이 넘었는데 호남지역 가까운 기수들과 교류가 많이 없었어요. IBK삼끼를 통해 좋은 추억을 쌓고 친해지고 싶어서 '먹잘알' 네 명이 모였습니다. 친해지려고 신청했는데 촬영 전에 이미 친해져 버렸네요! 그래서 더욱 기대되는 IBK삼끼입니다!”
 광양지점 이건희 대리의 신청으로 모인 동광주지점 이종원 대리, 순천지점 김진환 대리, 여수지점 박근엽 대리. 전라도 각 지점에서 모인 이들은 동기이자 선배 사이이다. 입행한 지 1~2년이 된 새내기 IBK인으로 앞으로 IBK의 미래를 이끌 인재들이었다.



“「IBK가 만드는 맛있는 지도」에서 제가 추천한 곳이 IBK삼끼 전라도편 맛집으로 선정돼서 너무 놀랐어요. 이곳은 제가 또또또! 와 본 맛집이거든요. 알고 있는 맛이라 더욱 기대됩니다!”
 마침 오늘의 맛집은 순천지점 김진환 대리가 추천한 곳이었다. 무릉도원에서 즐기는 보양식을 먹을 수 있다는 말에 눈이 반짝반짝 빛나던 IBK인들! 어서 '별천지'로 들어가 보자.

물 위의 식당, 별천지

식당 이름부터 별천지인 오늘의 맛집은 제대로 이름값을 보여주는 듯이 경치와 분위기가 아주 끝내줬다. 가운데 연못에서는 분수가 뿜어져 나오고, 그 속으로 는 비단잉어가 유유자적 움직이고, 물 위 방갈로에서 프라이빗하게 식사를 즐길 수 있는 곳이었다. 여기에 더운 날 몸보신으로 딱 좋은 닭백숙과 닭볶음까지! 정말 무릉도원에서 즐기는 보양식이었다.
 닭백숙과 닭볶음이 나오자, 환호성을 터뜨리는 IBK인들. 하얀 닭백숙과 빨간 닭볶음 비주얼이 아주 먹음직스러웠다. 유일한 선배이자, 맛집 추천인인 김진환 대리가 국자를 이용해 능숙한 실력으로 닭백숙을 발라 주었다. 아주 선배미가 뽐뽐!



**여름 보양식
완전 럭키비키
자나~**

“메뉴는 닭백숙과 닭볶음 두 가지밖에 없지만 둘의 조합이 너무 잘 어울려요. 이렇게 맛난 음식을 산 좋고 물 좋은 경치를 보며 먹으니 정말 좋네요!”
 “닭백숙의 맑고 시원한 국물이 예술이었어요. 같이 나온 닭죽도 간이 딱 맞아 정말 맛있었고요. 이런 완벽한 경치에 저렴한 가격까지 최고입니다!”
 닭백숙과 닭볶음을 먹고 칭찬을 아끼지 않는 박근엽 대리와 이종원 대리. 두 사람은 각각 여수와 광주에서 순천까지 먼 길을 달려 온 만큼 더욱 만족하는 느낌이었다. 게다가 친한 동료들과의 행복한 시간까지 더해지니 잊지 못할 추억이 쌓였다.





네 글자 이어 말하기 선수들!

오늘의 미니 게임은 4글자 이어 말하기! 라라랜드, 쾌걸춘향, 자강두천, 안물안궁, 조삼모사, 오비이락 등 영화 제목부터 신조어, 사자성어까지 다양한 문제를 준비했다. 재밌는 오답을 기대했지만 너무나 쉽게 맞춰버린 오늘의 IBK인들. 하지만 너무 긴장해 입술이 파르르 떨리던 모습은 눈감아 주자!

“자, 마지막으로 다 같이 외쳐주세요! IBK!”

“트끼~~~~!”

역시 센스있게 트끼를 외쳐준 오늘의 IBK인들! 배도 부르고, 경치는 여전히 좋고, 웃음은 끊이지 않는 행복한 점심 한 끼, IBK트끼였다.

“각자 지점에서 어떻게 은행 생활을 하고 있는지 들을 수 있어서 참 좋았어요. 지역이 멀다 보니 자주 만날 수가 없는데 이렇게 얼굴 보고 맛있는 음식도 함께 하니 신청하길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촬영이 처음이라 너무 긴장했는데 MC 손민혁님이 편안한 분위기를 만들어주셔서 덕분에 긴장이



풀렸어요. 기억에 평생 남을 추억을 쌓았고, 다음에 기회가 있다면 또 신청하고 싶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여름이 왔다. 오히려 좋다는 마음으로 여름이기에 즐길 수 있는 낭만을 찾아 닭요리로 몸보신하며 여름을 보내보면 어떨까? 오늘 IBK트끼가 딱 그런 시간이었다. 완전 럭키 IBK트끼!

‘IBK트끼’에 함께한 소감 한마디!

순천지점

김진환 대리

서로 다른 지점에서 각자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동료들과 함께 좋은 추억을 남길 수 있었습니다. 은행 생활에 있어 큰 원동력이 될 것 같습니다!

여수지점

박근엽 대리

<with IBK>에 나오게 되다니..! 더욱 IBK에 대한 소속감을 느끼는 시간이었어요. 좋은 기회로 함께한 IBK트끼와 동료들에게 정말 감사드립니다!

동광주지점

이종원 대리

날씨부터 촬영 분위기, MC 손민혁님의 진행까지 완벽했던 촬영이었습니다. 동료들과 즐거운 식사 자리를 가질 수 있게 되어서 행복했어요~!

광양지점

이건희 대리

IBK트끼 촬영 과정을 알 수 있어서 신기하고 저를 비롯한 동료들의 똑딱거리는 모습에 웃음이 마르지 않는 시간이었습니다! 연못을 보며 먹었던 닭백숙과 닭볶음도 최고였고요!



별첨지

닭백숙, 닭볶음

전라남도 순천시 원용당길 98 1

061-752-1630

사진 왼쪽부터 김진환·박근엽·이종원·이건희 대리

여수 밤바다의 낭만을 완성하는 섬

여수 돌산도

여수의 생김새는 한 마리 나비를 연상시킨다. 왼쪽 날개는 고흥으로 연결되고, 오른쪽 날개는 돌산도로 이어진다. 다리로 연결된 돌산도는 우리나라에서 8번째로 큰 섬이다. 향일암 일출과 돌산공원에서 보는 여수 밤바다 야경은 돌산도 최고 절경으로 꼽힌다.

돌산도



향일암, 일출 맞으며 소원 빌기

돌산도는 1984년 돌산대교가 생기면서 물이 된 섬이다. ‘돌산’이란 이름처럼 수려한 산들이 바다와 어우러져 풍광이 빼어나다. 하지만 사람들은 일출 명소인 향일암은 알아도 돌산도는 잘 모른다. 신라 원효대사가 창건한 향일암은 경남 남해 보리암, 인천 강화 석모도 보문사, 강원도 양양군 낙산사 흥련암과 함께 소위 ‘기도밭’이 잘 들기로 유명한 우리나라 4대 관음 도량 중 하나다.

깜깜할 때 돌산도의 숙소를 나왔다. 일출 시각은 5시 16분. 새벽부터 서둘러 4시 40분쯤 향일암 주차장에 도착해 비탈길을 올랐다. 일주문 앞의 돌계단을 오르고, 석문 사이의 틈을 지나 대웅전 앞마당에 닿았다. 구름이 살짝 낀 바다라 해가 뜰 조짐은 안 보였다. 허탕인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어느 순간 기척도 없이 구슬처럼 작은 동그라미가 솟아올랐다.

붉은 구슬은 점점 커지면서 향일암 곳곳에 묻은 어둠을 삼켰다. 세상이 흰해지자 암자가 눈에 들어왔다. 암자 주변은 동백나무를 비롯한 난대림으로 그득하다. 돌과 나무가 어우러진 암자는 파도 소리를 더해 깊은 울림을 준다. 이런 신비로운 풍경은 웬지 기도를 잘 들어줄 것만 같다. 떠오른 해를 향해 소원을 빌어 본다.



02

01 일출 명소이자 국내 4대 기도 도량 중 하나인 향일암. 금오산의 기암괴석 사이에 암자가 들어서 있어 신비롭다.
02 향일암 대웅보전 마당에서 바라본 일출. 뾰족한 섬인 통영의 두미도 왼쪽으로 해가 떠오른다.



03

03 봉황산에서 본 화태대교와 다도해 일몰



04

04 큰곶등대로 가는 울창한 숲길

큰곶등대, 여수의 숨은 명소

향일암에서 내려와 봉황산과 금오산 사이에 난 도로인 울림치를 넘었다. 구불구불 도로를 내려오면 앞으로 바다가 반짝이는 모습이 정겹다. 거대한 흰색 다리는 화태도와 돌산도를 이어주는 화태대교다. 앞으로 화태도, 월호도, 개도 등이 다리로 연결되어 백야도까지 갈 수 있다하니 걸어서 가는 여행에 또 다른 기대가 부푼다. 화태대교가 잘 보이는 곳에 신기함이 있다. 여기서 비렁길로 유명한 금오도로 가는 카페리호가 다닌다. 시간 여유가 있으면 잠시 금오도를 구경하고 나올 수 있다.

돌산향교 앞을 지나 20분쯤 가서, 큰곶등대 앞 도로에 차를 세웠다. 크게 휘어진 고갯마루 도로변에 여러 대 차를 댈 수 있는 공간이 있다. 여기서 등대까지는 250m 거리인데, 그윽한 숲길이 이어진다. 이름 모를 새가 울고 시원한 바람이 부는 호젓한 숲길을 걷는 맛이 일품이다. 뭔가 비밀의 장소로 들어가는 통로 같다. 숲길 끝에 무언가 하얀 것이 보이는데, 그게 큰곶등대다. 싸~ 시원한 파도 소리가 들리면서 등대가 나타난다.

큰곶등대는 거대한 절벽 위에 흰색 등대가 덩그러니 놓여 있다. 안내도 없고, 알려진 게 거의 없다. 그래서 더 매력적이다. 등대 앞으로 바다로 흘러내리듯 거대한 암반이 펼쳐진다. 벌집처럼 구멍이 송송 뚫린 울퉁불퉁한 암반 위를 조심조심 걸어 내려가면, 작은 몽돌 해변이 나온다. 밀려든 물살이 빠져나갈 때마다 ‘차르륵~ 차르륵~’ 돌 구르는 소리가 음악처럼 들린다.

05 거대한 암반 위에 자리한 등대는 시원한 바다가 어우러진다.



05



전남해양수산과학관과 무슬목해변

큰곶등대에서 10분쯤 가면 무슬목해변 옆에 자리한 전남해양수산과학관이 나온다. 과학관은 세계의 다양한 물고기, 산호 등 해양 환경을 알 수 있는 박물관이다. 아이는 물론 해양 생물과 환경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흥미롭게 관람할 수 있다.

로비로 들어서면, 거대한 원통형 수조에서 돌돔, 범돔, 두동가리돔 등 국내외의 다양한 돌류 물고기들이 놀고 있다. 그 옆의 수조에서는 다양한 열대 어종들과 로봇 물고기가 유유히 수영하는 모습이 신기하다. 그 옆 수조의 쭈기미와 철갑동어는 생김새가 재미있고, 썸뱅이, 해마, 은어, 능성어, 전갱이 등 다양한 어류를 차례로 만난다.

하와이에 사는 생물, 홍해에 서식하는 생물 등의 전시도 흥미롭다. 산호와 여기에 사는 니모의 귀여운 모습도 볼 수 있다. 2층 전시실에는 어업의 역사가 펼쳐진다. 죽방렴, 독살, 대나리 그물, 후릿그물, 해녀 물질 등 다양한 전통 어업의 형태를 알 수 있다. 그밖에 바다에 사는 온갖 물고기와 어패류 표본도 전시되어 있어 아이들의 공부에 큰 도움이 된다.

과학관에서 뒷문을 통해 나오면 무슬목해변이 나온다. 울창한 해송이 시원한 그늘을 만들고, 해변은 자갈로 뒤덮인 몽돌과 백사장이 어우러진다. 사람들이 쌓아 놓은 돌탑 뒤로 해변과 죽도라 이름 붙인 두 개의 작은 무인도가 어우러진 풍경이 평화롭다.

해변 솔숲은 조각공원으로 꾸며졌다. 화려한 색상의 갑옷을 두른 조각은 이순신 장군이다. 무슬목은 무슬목으로도 불린다. 이순신 장군이 왜군을 섬멸한 해가 무슬년(戊戌年)이어서 그 전적을 기리고자 무슬목이라 부르게 됐다는 설이 있다.



돌산공원 일몰과 여수 밤바다 야경

돌산도 드라이브의 마지막 여정은 돌산공원이다. 1984년 여수시와 돌산도를 연결하는 돌산대교가 건설되고, 이곳에 돌산대교 준공기념탑을 건립하면서 공원으로 만들어졌다. 1999년 여수시 타임캡슐을 묻었고, 2002년에는 어민공원도 만들어 거친 바다를 상대로 일하다 숨겨간 어민들의 혼백을 위로하는 어업인위령탑도 세웠다.

돌산공원에 들어서면 우선 돌산공원 꼭대기에 자리한 여수해상케이블카 정류장을 둘러보자. 3층 전망대에 서면, 여수 시내가 한눈에 들어온다. 여수 밤바다의 낭만을 한눈에 감상할 수 있다. 돌산공원 최고의 조망 명소는 돌산대교 준공기념탑 앞이다.

시나브로 건너편 남산공원의 산 너머로 해가 누엠티엠티 지고, 돌산대교와 장군도 일대에 불이 들어온다. 화려한 야경을 보고 싶노라면, ‘여수 밤바다 이 조명에 담긴 아름다운 얘기가 있어/네게 들려주고파 전할 걸 어 뭐 하고 있냐고/나는 지금 여수 밤바다 여수 밤바다’ 하는 유행가를 읊조리게 된다. 여수 밤바다의 야경은 돌산공원에서 비로소 완성된다.



Tip 돌산도 가이드

돌산도는 대중교통이 불편하기에 드라이브로 한 바퀴 도는 게 좋다. 항일암 일출과 돌산공원 야경은 필수다. 큰곶등대, 전남해양수산과학관과 무슬목해변, 돌산향교 등을 함께 둘러보자.

교통

KTX를 이용하면 여수까지 편리하게 닿을 수 있다. 여수엑스포역 일대에서 쏘카, 그린카 등의 렌터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숙소

돌산도 구석구석 다양한 펜션이 많다. 돌산차경(010-3379-0910), 블루망고폴빌라엔리조트(061-924-7777) 등이 인기 숙소다.

맛집

정현횡집(061-644-8213)은 싱싱한 세꼬시 회를 내오고, 메밀빛 초계국수막국수양평해장국(061-685-5800)은 시원한 초계국수를 판매한다.

- 06 해양 생물 공부에 큰 도움을 주는 전남해양수산과학관
- 07 돌돔, 범돔 등 각종 돌류 물고기를 전시한 원통형 수조
- 08 돌산공원에서 본 돌산대교와 여수 밤바다 야경. 돌산도 최고 절경이다.
- 09 무슬목해변의 이순신 장군 조형물



서핑, 고래, 왕국을 간직한 '스펙터클 하와이'

마우이

하와이 마우이섬의 일과는 눈부시다. 하와이 군도 최고의 일출과 일몰, 서핑과 고래 구경이 펼쳐지기에. 여기에 옛 하와이 왕국과 고래잡이 선원들의 흔적이 더해지면 섬의 신비로움은 쉽게 정의되지 않는다.



Hawaii Maui

고래와 왕국의 터전, 라하이아

하와이는 낯설고 은밀한 풍광을 지녔다. 호놀룰루가 속한 오후우섬을 벗어나면 스펙터클한 하와이가 열린다. 군도 남쪽 섬 마우이는 쇼핑센터로 각인된 호놀룰루처럼 분주하지 않다. 해변은 휴양과 서핑으로 채워지고, 소설 속 등장했던 고래잡이 포구와 휴화산의 일출 체험이 기다린다.

마우이는 옛 하와이 왕국의 수도를 간직한 섬이다. 호놀룰루로 수도를 옮기기 전, 서쪽 라하이아는 18, 19세기 하와이 왕국의 번잡한 포구 도시였다. 라하이아는 하와이 원주민의 말로 ‘잔인한 태양’이라는 뜻을 지녔다.

뜨거운 햇살에 부서지는 포말처럼, 라하이아 인근 바다에는 수평선을 찬란하게 물들이는 고래들이 자주 출몰했다. 19세기 라하이아에는 고래잡이를 위해 400여 척의 포경선이 드나들었을 정도. 왕국과 고래의 흔적은 라하이아 곳곳에 담겨 있다. 도심에는 고래 그림과 조각상이 새겨져 있고, 포경선 선원들이 묵었던



02



03



01

‘파이오니어 인’ 호텔이 남아 있다. 하와이 왕조를 통합한 카메하메하 왕의 궁전과 요새, 법원과 와이올라 교회에도 옛 사연이 묻어났다. 19세기 중반 카메하메하 3세가 통치하던 시기는 하와이 왕조 역사상 가장 번영을 누린 시대였다. 작가이자 선원이었던 허먼 멜빌은 고래를 소재로 한 소설 ‘백경’을 통해 라하이아의 풍경을 작품 속에 담았다.

라하이아 항구의 아침 정취는 북적거리고 한껏 들떠 있다. 날렵하고 덩치 큰 생선인 ‘마히마히’가 포구에서 거래되고, 생선을 옮기는 어부들의 발걸음이 분주하다. 고래가 출현하는 시즌이면 항구 주변으로는 고래 구경을 나서는 탐험선들이 손님들을 맞는다.

‘웨일 와칭’은 낚시와 함께 라하이아 포구의 대표 프로그램 중 하나다. 포구에서 30여 분만 이동하면 고래가 뿜어내는 큰 물거품을 만난다. 흑등고래의 주요 활동무대가 바로 하와이 마우이섬 일대다. 흑등고래는

알래스카에 머물다 마우이섬 인근으로 이동해 새끼를 낳는다. 큰 고래와 만나지 못하더라도 돌고래, 거북 등과 어우러져 스노클링을 즐기는 투어가 흥미진진하게 전개된다.

휴화산 할레이칼라의 일출 체험

라하이아는 1845년 호놀룰루로 수도를 옮기면서 도심 윤곽이 쇠퇴했다. 도시 주변에 훈풍을 불어넣은 지역은 북쪽 카아나팔리 해변이다. 카아나팔리 해변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리조트들이 모인 마우이 최대의 휴양지다. 이방인들은 낮은 모래 해변과 노천 바, 쇼핑센터가 어우러진 공간에 심터를 마련하고 여유롭게 휴양을 즐긴다. 은밀한 공간을 원하는 신혼부부들도 최근 카아나팔리 해변을 즐겨 찾는다.

카아나팔리 해변과 라하이아 일대는 하와이에서 가장 빼어난 일몰 포인트다. 해 질 무렵이면 고래 투어 보트들은 석양의 크루즈에 자리를 양보한다. 태평양 너머로

01 라하이아의 고래모형 조각상
02 옛 포경선의 흔적인 대형 닻
03 선원들이 묵었던 ‘파이오니어 인’ 호텔
04 아침 해를 토해내는 할레이칼라 분화구



04

마우이의 최고 별천지는 할레이칼라 화산이다. 휴화산의 일출 체험을 위해 이방인들은 어둠 속에서 도로를 질주하는 여정을 마다하지 않는다.

가라앉는 태양과 함께 선상에서는 와인 한잔을 곁들이며 하와이 원주민들의 전통춤인 '루아우쇼'가 펼쳐진다. 요트에 오르지 않더라도 라하이나의 메인 거리인 프런트 스트리트 곳곳이 일몰 풍경으로 채워진다. 바닷가에 도열한 옛 유적과 호텔에도 석양이 내려앉는다.

해변의 일몰은 휴화산의 일출과 감동의 격을 같이한다. 마우이의 최고 별천지는 할레아칼라 화산이다. 휴화산의 일출 체험을 위해 이방인들은 어둠 속에서 도로를 질주하는 여정을 마다하지 않는다. 할레아칼라의 휴화산과 해돋이를 마주하는 일정은 새벽 3시부터 시작된다. 어둠 속에서 뻑뻑하게 산을 기어오르는 차량 행렬과 마주치면 침묵하던 가슴이 빠르게 뛰기 시작한다.

해발 3,058m에 자리한 세계 최대급 규모의 휴화산인 할레아칼라는 동트기 전 빼곡한 인파로 채워진다. 어둠과 구름을 걷어내고 분화구에서 솟아오르는 해를 보기 위해 이방인들은 옷깃을 동여매고, 우비를 뒤집어쓰고 웅성거리며 자리를 지킨다.

이곳 원주민 언어로 '태양의 집'이라는 뜻을 지닌 할레



아칼라는 흑성의 표면을 닮았다. 910m 깊이의 분화구 안에는 작은 분화구가 성긴 그늘을 드리우며 담겨 있다. 태양을 부르는 원주민 여인의 주문이 끝나면 마술에 홀린 듯 태양이 솟고, 갓 달궈진 붉은 분화구가 자태를 드러낸다. 소설가 마크 트웨인은 이곳 일출을 본 뒤 "지금껏 본 풍경 중 가장 숭고한 경치"라고 평했다. 분화구를 응시하며 수백 명이 서로 얼싸안고 눈물 짓는 진귀한 장면이 압권이다.



역동적인 파도, 서퍼들의 아지트

할레아칼라가 속한 마우이 동쪽은 서쪽 해변과는 풍광이 다르다. 하와이의 자연과 삶이 호젓한 경치 속에 담긴다. 고원지대 콜라는 화산토에서 자라는 하와이 커피와 라벤더 농장을 만나는 곳이다. 할레아칼라 산자락의 마카와오 마을은 아티스트의 감성이 전해지는 소박한 예술 동네다. 아기자기한 갤러리와 소품숍이 인상적이며, 야생마를 길들였던 하와이안 카우보이들의 대회가 매년 7월 이곳에서 열린다.

마우이의 동쪽 끝은 '천국의 길'로 알려진 '하나'로 연결되는 길이다. 낯선 폭포와 협곡 등 하나의 울창한 자연경관이 드라이브 길 속에 담긴다. '어퍼 하나위', '와일루아' 폭포 등에 넋을 놓거나, 아름답기로 소문난 하모아 해변에서 나만의 휴식을 탐닉할 수 있다.

마우이 투어의 정점은 서핑이다. 해변 곳곳에 서핑 포인트가 담겨 있다. 북쪽 후키파 해변은 실력자들이 도전장을 던지는 집채만 한 파도가 불만하다. 특히 후키파 해변은 서핑과 함께 윈드서핑을 즐기는 포인트다. 남서쪽 해변인 푸아마나, 우크메하메 등은 초·중급 서퍼들이 여유롭게 서핑하는 곳으로 유명하다.

하와이는 세계 3대 서핑 스폿으로 명성 높다. 1950년대부터 본격적인 서핑이 시작됐으며, 베테랑들이 출전하는 대규모 서핑대회를 이어오고 있다. 역동적인 파도를 탐하는 서퍼들은 와이키키의 노스쇼어에서 마우이 북쪽의 저스 해변으로 공간이동 중이다.



Tip 마우이 가이드

카홀로이 공항이 마우이의 관문이다. 본 섬 호놀룰루에서 수시로 비행기가 오간다. 공항에서 차량 렌트를 하는 게 일반적이며, 라하이나 등 주요 도시까지는 30분 정도 소요된다. 주요 관광지는 차가 없어도 '마우이 버스'로 오갈 수 있다.

레스토랑들은 인근 바다에서 잡은 식재료를 테이블 위에 올린다. 피쉬 컴퍼니, 쉬림프 컴퍼니 등 생선, 새우를 테마로 한 식당들이 포구 주변에 자리해 있다. 그중 해산물에 해조류와 채소를 얹은 '포케'는 관광객들에게 인기 있는 현지식이다.

마우이에서는 하와이 전통춤인 '루아우쇼'를 볼 수 있다. 원주민의 춤과 음악을 야외에서 관람할 수 있으며 바비큐 식사가 곁들여지기도 한다. 라하이나의 프런트 스트리트에서는 매주 금요일 밤이면 버스킹과 함께 다채로운 이벤트가 열린다.

할레아칼라에서 일출을 보려면 사전 예약이 필수다. 할레아칼라 정상의 평균온도는 여름에도 3~14도까지 떨어진다. 마우이 인근의 몰로키니 섬은 열대어와 함께 스노클링을 즐기는 명소다.

05 카아나팔리 해변의 패러세일링

06 마우이에 서식하는 바다거북

07 역동적인 파도를 즐기는 후키파 해변의 서퍼들

08 하와이의 전통춤인 '루아우쇼'



비가 오면 비를 맞고 가는 거지, 하하

화끈했던 금수산 빗속 산행기

지난해 여름, 소백산을 올랐던 이들이 이번에는 금수산에 모였다. 반가운 얼굴과 새로운 얼굴, 산행 베테랑부터 초보까지 다소 아기자기했던 소백산행과 달리 ‘무조건 직진, 무조건 정상’을 외치는 사내들의 금수산행은 터프했다. 아, 굼뻐던 빗줄기 탓도 있다.



QR코드를 스캔하면
<with IBK>를 영상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錦繡山

※ IBK산은 등산 안전 수칙을 준수하며 진행하였습니다.

1년 만에 다시 찾은 산

소백산행을 마치고 다음 산행을 언급했을 때 그들의 대답은 “내려가시죠”였다. “이렇게 힘든데 산은 무슨 산이나. 대신 안 올 거다”라는 메시지가 눈빛으로 전해졌다. 근데 다시 모였다. 그렇다고 부지런히 산에 다녔던 건 아니다. 지난해 소백산의 즐거웠던 기억이 새록 새록해서 다시 IBK산의 문을 두드렸다고.

일기예보 상으로는 비가 조금 내리다 그치고 오후에 갠다고 했는데, 아침부터 하늘이 잔뜩 찌푸리고 있었다. 비가 내린다면 맛보기로 조금만 내릴 것 같진 않다. 안 오기를 바라면서 몸을 푼다. 오면 맞으면서 가는 거고.

기업지원부 노재석 팀장이 스마트폰으로 국민체조 음악을 틀었다. 오래된 몸풀기 동작들이지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스트레칭과 워밍업, 산행 전 사전운동으

로 훌륭하다. 산행을 기획한 청주율량지점 권재원 차장이나 오창지점 박수규 팀장은 다소 올드한 몸풀기가 익숙하면서도 웃음이 난다. 함께 온 당진지점 정범식 차장과 이성해 과장, 진천지점 임준영 대리, 외환사업부 김정겸 과장도 익숙한 듯 몸을 푼다.

이 중에서도 김정겸 과장은 산행에 임하는 각오가 남다르다. 지난해 소백산이 너무 힘들었기 때문이다. 체중을 감량하고 집 근처 둘레길을 꾸준히 걸으면서 체력을 키워왔다. 천천히 가는 게 민폐랄 것은 없다. 즐겁고 안전하게 다녀오는 게 가장 중요하니까. 다만 스스로에게 주어진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 노력하는 건 대단히 멋진 일이다. ‘내가 저 산을 오를 수 있을까? 한번 가보자’, 이런 거지. 세상 많은 위대함은 도전정신과 호기심에서 출발했다.



02

월악산국립공원의 히든카드, 금수산

금수산(錦繡山). 금수산이야말로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금수강산의 대표적인 산이다. 오죽하면 이름이 금수산이겠는가. 정상부에 거대한 암괴들이 즐비한데 가을이면 붉게 물든 단풍이 무채색의 암석과 조화를 이루면서 비단을 수놓은 듯하여 이름이 금수산이다. 게다가 주변의 산줄기는 백두대간이라 우뚝하고, 아래로는 충주호가 있어 일품의 경치다.

국립공원 구역 안에 있는 까닭에 탐방로가 잘 정비되어 있고 이정표도 곳곳에 있다. 탐방로는 크게 두 가지 코스. 동쪽에서 오르는 상학 코스와 서쪽에서 오르는 상천 코스가 있다. 상천 코스가 조금 더 길고 험한데, 곳은 날씨를 감안해 상학 코스로 오르기로 한다. 정상은 1,016m로 높아 만만찮은 산행이 예상됐다.

“우리는 일단 출발하면, 정상을 봐야 해! 그게 우리들의 산행이지.”

“그치. 비가 오네? 그럼 비를 맞고 가는 거지. 자, 우의 하나씩들 받아.”

천천히 가는 게 민폐랄 것은 없다. 즐겁고 안전하게 다녀오는 게 가장 중요하니까.

- 01 본격적인 산행에 앞서 오늘의 등산로를 파악하고 있다
- 02 금수산 표지석 앞에서 찰칵!
- 03 오늘의 목적지를 가리키고 있다.



03



01



04

“지금은 안 와도, 곧 오겠네요. 자, 가시죠. 정상까지 멀지 않습니다.”

한여름의 소백산도 쪽쪽 치고 나갔던 이들이라 망설임이 없다. 물론 날씨가 궂으면 산행에 많은 주의를 해야 한다. 바윗길이든 흙길이든 훨씬 미끄럽고, 체온조절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 운동과 산행에 경험이 있기 때문에 분위기도 워밍업을 하는 것이다. 즐거우면 고된 것도 덜하다.

너덜이 끝나면 곧바로 능선에 올라선다. 능선부터 정상까지는 숨을 돌리면서 천천히 가도 10~15분이면 된다. 문제는 능선에 이르기 전에 장대비가 시작됐다는 것. 다들 알아서 자기가 선 위치에서 주의해야 할 점들을 공유한다.

“여기 미끄럽습니다. 나무 잡고 조심하오세요.”

“오케이. 다들 무리하지 말고 안전하게 천천히~!”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텐션

탐방로는 평탄하게 이어진다. 나무로 만든 계단길이 연거푸 이어지다가 깊은 숲속에 들어섰다는 느낌이 들면 바위 구간이다. 암반 위를 쇠줄 잡고 오르는 구간이 아니라 크고 작은 바위가 널린 구간을 조심스럽게 계단처럼 올라야 한다.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지만, 아직 그리 많지도 굵지도 않다. 되도록 비가 오기 전에 진도를 빼는 게 좋는데 너덜 구간이라 쉽지 않다.



05



- 04 아직은 파이팅 넘치는 IBK인들
- 05 시원한 음료수와 함께 등산도 더 힘차게
- 06 갑작스레 내린 비에도 당황하지 않고 찰칵
- 07 굵어진 빗줄기에 등산복 재정비에 들어갔다.

“비 맞으면서 산행하는 맛, 이거 괜찮네.”
드디어 정상. 기쁜 마음으로 하이파이브. 빗속을 걸어 오른 정상이라 조금 더 특별했을까, 1년 만의 산행이라 그랬을까. 작은 정상석이지만 함께 산을 오른 감동은 산줄기처럼 꿈틀댄다. 모든 일이 그렇듯,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텐션이다. 지치지 않고 웃으면서 해볼 수, 해낼 수 있을 테니. 그리고 늘 그렇듯, 산행으로 느슨해진 텐션을 다시 끌어올리는 방법은 정해져 있다.

“자 이제 내려가자! 백숙 먹으러 가자!”

대부분의 산행은 차를 회수해야 해서 올라간 길을 돌아서 내려오는 경우가 많다. 금수산은 망덕봉삼거리로 능선에 올라 정상에 갔다가 금수산삼거리로 내려올 수 있어 지루하지 않은 산행을 할 수 있다. 물론 두 코스 모두 너덜지대가 있다. 그래서 결국 한두 명이 미끄러졌다던가 어찝다던가. 내려오는 발걸음은 가볍기 마련이라 축지법이라도 쓴 듯 주차장에 이르렀다.



07

산행 후엔 도리없이 백숙

고된 탐방로에 비까지 제법 내려 몸은 몸대로 고된 것이 산행을 마친 후에도 몸이 으스스한 게 뭔가 따스한 국물을 몸이 원하는 것 같았다. 이걸 백숙을 먹고자 하는 큰 그림이 아니라 내내 비를 맞으며 산행한 이들의 자연스러운 신체 반응이다. 산행 시작할 때 봤던 백숙 집으로 직행.

오랜만에 모여 산행도 즐기고 식도락까지 만끽한 충북회. 살아가는 일이 좋은 사람들과 좋은 기억을 쌓으면서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고 그러면서 조금씩 깊어지는 것이라 어렵게 시간을 내 함께 보낸 하루가 소중하다. 물론 때론 나아가야 하는 길이 어렵고 험해도 묵묵히 한 걸음씩 내디뎌야 한다. 그래서 좋은 사람 좋은 기억이 더 필요한 법이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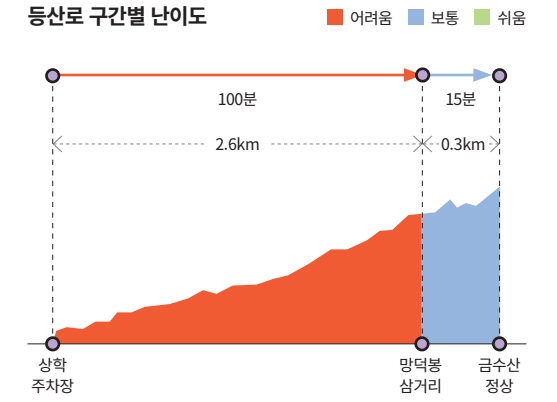
08

금수산 INFO



- 주소** 충청북도 제천시 수산면 상천리
- 입산 시간** 상시 개방
- 코스** 상학주차장 - 망덕봉삼거리 - 정상 - 금수산삼거리 - 상학주차장(약 5.6km)
- 문의** 월악산국립공원사무소 043-653-3251

등산로 구간별 난이도



08 좁은 비탈길을 조심히 오르며 정상으로 향하다.

09 비바람을 뚫고 정상에 도착한 IBK인들

10 자욱한 물안개 속에서 위엄을 드러내는 금수산

09



10



뜨거운 여름을
시원하게 즐기는 캠핑

낭만으로 가득했던
우리의 시간

여름은 일 년 중 가장 뜨겁고 무더운 계절이지만, 가장 낭만 가득한 계절이기도 하다. 여름을 낭만으로 채우는 방법은 캠핑을 떠나는 것이다. 해가 질 무렵 아름다운 하늘, 까만 밤이 찾아든 고요한 밤, 감성 충만한 새벽 시간까지 오붓하게 즐길 수 있는 1박 2일의 낭만 속으로 떠났다.



Romantic Camping



캠핑장에서 동료들과 멋진 하루밤을!

캠핑은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마다 각기 다른 매력을 지닌다. 아름다운 자연과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 얻은 달콤한 휴식은 그 무엇과 바꿀 수 없을 만큼 소중한 기억으로 남는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시간이 생기면 캠핑장을 찾곤 한다. 사실 캠핑의 세계는 넓다. 캠핑은 ‘텐트를 치고 야외에서 야영하는 것’을 말하는데 오토캠핑, 백패킹, 글램핑까지 모두 캠핑에 속한다. 이중 글램핑은 캠핑 장비를 따로 준비할 필요 없다는 점에서 매력적이다. 몸과 마음을 비교적 가볍게 하고 떠날 수 있다는 점에서 캠핑에 대한 부담이 훨씬 덜하다. 짐이 적을수록 당연히 휴식은 더 커진다.

여덟 명의 IBK인들이 ‘불타는 토요일’을 보내기 위해 가평의 한 글램핑장에 모였다. 한 팀은 수색지점 김은옥 과장, 계양서운산단지점 유리 대리, 춘의테크노지점 유예리 대리, 일산풍동지점 한경진 차장으로 구성된 여성 팀. 또 다른 팀은 카드마케팅부 김준수 대리, 외환사업부 김용운 대리, 정민식 대리, 개인고객부

박지수 대리로 구성된 남성팀이다. 서로에 대해 잘 모르는 두 팀은 캠핑장에서 만나 인사를 나눴다. 어색함이 살짝 감돌았지만, 반가운 마음이 더 큰 듯 보였다. 캠핑의 시작은 챙겨온 짐을 푸는 것부터 시작한다. 여성팀은 “캠핑장에 오기 전 다 함께 장을 보았다”라며 다양한 먹거리들을 풀기 시작했다. 손길은 몹시 분주했지만, 모두의 얼굴에는 설레는 미소가 가득했다. 한경진 차장이 네 사람의 인연에 대해 전했다.

“2008년 초임지였던 도당동지점에서 만났어요. 도당동지점이 규모가 크고 고객도 많아서 하루가 무척 바쁘게 흘러가는 지점이었어요. 그래서인지 동료들끼리 더 끈끈한 관계를 이어갔던 것 같아요. 저희 넷은 나이가 비슷한 또래고 결혼, 출산, 육아까지 비슷한 시기에 하면서 인생의 동지가 됐어요. 아, 골드미스도 한 명 있어요(웃음). 이제는 서로의 가족들과 여행을 다닐 만큼 돈독하고 편한 사이가 됐습니다.”

남성팀도 분주한 건 마찬가지였다. 순두부찌개와 부

대찌개 등의 밀키트와 캠핑의 꽃인 바비큐 시간을 위한 고기와 새우 등이 재빠르게 냉장고로 옮겨졌다. 박지수 대리가 이벤트에 참여한 계기를 전했다.

“저희 네 사람은 모두 19살에 입행해서 올해 29살이 됐어요. 지난 10년 동안 우리에게 어떤 추억이 있었나 뒤 돌아봤더니 군대 가기 전 함께 여행을 다녀온 것 외에는 여행을 다녀온 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옛날처럼 다 같이 한번 떠나 보자’라는 마음으로 뭉쳤습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오늘만을 기다렸습니다(웃음).”

웃음과 행복이 넘치는 시간

짐을 풀었으니 이제는 본격적으로 음식을 준비할 차례다. 캠핑은 먹는 즐거움이 매우 크다. 완벽한 식재료가 아니더라도, 멋진 격식을 차리지 않더라도 그 즐거움은 충분하다. 컵라면 한 사발이라도 야외에서 먹는



맛은 그 무엇과 견주어도 손색이 없다. 특히나 평소 먹고 싶던 것을 함께 만들어 먹는 재미도 있다. 여성팀은 시원한 화채를 준비하느라 바빴다. 수박의 속을 파내 커다란 통에 담고 베리류의 과일을 듬뿍 넣고 시원한 얼음을 한가득 부으니 여름 더위가 금방이라도 가실 것처럼 시원하게 느껴졌다.

“저희는 가끔 같이 캠핑을 떠났어요. 캠핑의 장점은 자연 속에서 계절이, 하루가 변하는 걸 온전히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같은 공간에서 같은 풍경을 바라보며 같은 시간을 보낸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매력적이잖아요. 그러면서 서로의 관계도 더 돈독해지고요!” 김은옥 과장의 ‘캠핑 예찬’에 나머지 세 사람이 공감의 뜻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 캠핑은 도심의 소란에서는 느낄 수 없는 고즈넉한 감성이 자리한다. 네 사람은 오랜만에 집을 떠나 그런 감성을 느끼고 싶은 것이다.

남성팀에서는 보드게임과 배드민턴 등의 놀거리를 잔뜩 챙겨왔다. 한낮의 열기가 채 사그라지지도 않았는데, 남성팀은 배드민턴을 치면서 활동적인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이때 여성팀에서 직접 만든 화채를 나눠줬다. “와~ 잘 먹겠습니다!” 남성팀이 반가운 인사로 화답했다. 두 팀은 시원한 화채를 먹으면서 잠시 여유의 시간을 가졌다. 어디선가 간간히 더위를 식혀주는 바람이 불어왔다. 그때마다 기분이 상쾌한 듯 사람들의 얼굴에 부드러운 미소가 일었다.



낭만 가득한 여름밤, 우리가 함께하는 추억

해가 서서히 서쪽으로 기울어 가는 시간. 드디어 캠핑의 하이라이트를 위한 준비가 시작되었다. 캠핑의 백미는 뭐니 뭐니 해도 바비큐 파티다. 불을 지피고 고기를 구워내는 과정 자체가 즐거움의 시작이고, 맛있게 익은 고기를 먹는 일은 이보다 더 큰 즐거움이다. 두 팀은 상추와 깻잎 등 준비해 온 채소를 씻고, 냉장에서 고기와 버섯 등을 꺼내 세팅해 두었다. 글램핑장에서 준비해준 숯불이 화로에 옮겨지자 캠핑의 분위기는 배가 되었다.

드디어 화로에 고기가 올려지고 연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고기가 자글자글 익어갈수록 바비큐 향이 진해지고 오순도순 즐거운 대화가 어우러졌다. 오랜만에 집안일과 육아에서 벗어난 여성팀은 “오롯이 나와 우리를 위한 시간을 보내겠다”라며 환하게 웃었다. 남성팀은 “오늘은 우리의 10년이란 시간을 추억함과 동시에 빛의 우정을 더욱 돈독히 다지는 멋진 시간으로 만들고 싶다”라는 바람을 전했다.

“10년 전에는 그 나이에 맞는 우리만의 대화 주제가 있었어요. 10년이 흐른 지금도 서로가 공감할 수 있는 대화 주제가 있다는 게 참 행복한 것 같아요. 나이를 점점 먹어가면서 현실적인 대화를 많이 하게 되었고, 그래서인지 좀 더 어른스러워지기도 한 것 같아요. 오늘은 10년 전 청춘을 떠올리면서 즐겁게 웃고, 또 우리가 현재 보내고 있는 청춘에 대해 얘기하면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겠습니다.”

맛있는 식사와 함께 즐거운 대화가 끊임없이 오갔다. 밤이 찾아들자 어둠을 밝히는 텐트의 불빛이 아늑하고 편안하게 느껴졌다. 이제는 캠핑의 또 다른 백미를 즐길 시간. 모닥불을 지피고 불명의 시간이 이어졌다. 여름이라도 모닥불이 따스하게 느껴졌다. 산에서 불어오는 시원한 밤바람 덕분이었다. 낭만적인 밤, 이들은 서로를 더 가깝게 느끼며 삶의 소중한 순간을 함께한다는 행복에 푹 빠져 있는 듯 보였다. 까만 하늘에서는 별들이 반짝반짝 빛나며 이들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IBK버킷리스트 미니인터뷰

좋은 사람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참으로 행복합니다. 앞으로도 오랫동안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좋은 추억을 만들어갔으면 합니다.



일산풍동지점 한정진 차장

사회생활을 하면서 얻은 좋은 동료들이 제 곁에 있다는 게 고맙습니다. 동료들에게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고요, 오늘 이 시간도 더없이 즐겁게 보내고 싶습니다.



수색지점 김은옥 과장

캠핑이라는 낭만에 빠질 수 있는 1박 2일의 시간이 무척 소중한데 느껴져요. 직장생활을 하면서 든든한 버팀목이 돼준 동료들과 앞으로도 행복하고 싶어요.



계양서운산단지점 유리 대리

우리의 멋진 1박 2일! 누구 하나 아프지 말고 건강하게 오래 봤으면 좋겠어요.



춘의테크노지점 유에리 대리

함께하는 이 시간이 무척 소중한데요, 한편으로는 집에 혼자 있을 아내에게 미안한 마음도 듭니다. 그럼에도 1박 2일 동안 즐거운 추억 만들었습니다.



카드마케팅부 김준수 대리

19살에 만나 29살이 된 우리, 그동안 정말 정신없이 바쁘게 살아온 듯합니다. 앞으로는 동료들과 좀 더 여유를 가지면서 살아가고 싶습니다.



의환사업부 김용운 대리

캠핑장에 오니 일상에서와는 또 다른 활력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맛있는 바비큐 파티도, 낭만적인 불명도 무척 좋았습니다.



의환사업부 정민식 대리

좋은 동료들과 함께하는 시간이라 무척 의미 있는 시간입니다. 앞으로도 잊지 못할 우리만의 멋진 추억을 만들어갔습니다.



개인고객부 박지수 대리

취향의 교집합을 이뤄 다음과 일상을 수놓는 선율

통기타 밴드 동호회 'IBK WE ARE'

- 1. 부산울산여신심사센터 이영주 대리
- 2. 부산진지점 이균석 팀장
- 3. 창원중앙지점 이병철 지점장
- 4. 부산울산여신심사센터 김삼나 대리
- 5. WM사업부 최유화 차장
- 6. 부산역지점 현수환 팀장



같은 노래도 누가 부르느냐에 따라 그 느낌이 달라진다. 그래서일까. 'WE ARE'의 노래에는 따스하고 포근한 위로가 담겨있다. 음표 마디마디에 피어나는 꽃 한 송이처럼 'WE ARE'의 선거운 연주를 듣고 있으면 주변에 행복이 꽃 피운다.



QR코드를 스캔하면
<with IBK>를 영상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 7. 부산울산여신심사센터 강경동 팀장
- 8. 덕천동지점 박정규 팀장
- 9. 부산지점 김민찬 지점장
- 10. 학장동지점 최순영 차장
- 11. 정관지점 안천희 지점장





Q. 동호회 소개 및 만들어진 계기가 궁금합니다.

A. IBK 통기타 밴드 동호회 ‘IBK WE ARE(이하 ‘WE ARE)’’는 부산과 울산, 경남 직원들로 구성된 IBK 내 유일한 통기타 밴드 동호회입니다. 사실 직장인 대부분에게는 마음 한편에 풀리지 않는 갈증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 똑같은 일상으로 익혀진 습관적 나태함에서 탈피하고, 새로움에 도전해보고자 마음이 맞는 사람들과 함께 동호회를 결성하게 됐습니다. 동호회명인 ‘WE ARE’는 ‘우리는 무엇이든 되고, 할 수 있다’라는 무한한 가능성을 보여주고 싶어 만든 이름입니다. 그 가능성 속에서 음악을 무기로 자신의 진정한 자아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Q. 동호회 가입 조건이 있을까요?

A. 기타와 노래를 사랑하는 직원이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열린 동호회입니다. 다만, 통기타 밴드 동호회다 보니 통기타 실력을 어느 정도 갖추고 있다면 합주하기에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외에도 보컬은 물론, 하모니카, 드럼, 피아노 등 악기를 연주할 수 있다면 적극 환영합니다.

Q. 직장인이라 평소 연습 및 활동이 어려울 것 같아요. 활동은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A. 회원들 모두 각자의 업무가 있고, 가정이 있다 보니 일부러 시간 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WE ARE’는 매월 격주 목요일마다 정기모임을 하고 있고, 이번처럼 공연 일정이 잡힐 땐 주말을 포함하여 수시로 모여 연습합니다.



‘WE ARE’는 ‘우리는 무엇이든 되고, 할 수 있다’라는 무한한 가능성을 보여주고 싶어 만든 이름입니다.

Q. 동호회 활동이 회사 생활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A.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정말 많은 일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정신적, 신체적으로 감당하기 힘든 사무실 업무부터 개인적인 일들까지, 하지만 이러한 일들에 대해 서로 공감하고, 속 시원하게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상대를 만나기란 어려운 일이죠. 또 시대가 발전하면서 할 것, 볼 것, 들을 것들이 정말 많아져 사람과 사람 사이의 거리는 더 멀어졌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통기타 밴드 동호회라는 아날로그적 활동 덕분에 더 활기차고 생동감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Q. 동호회 활동 중 기억에 남는 순간은 언제인가요?

A. 2022년 5월 동호회가 결성된 후 연간 5~6회 정도 무대에 오르고 있습니다. 2024년 2월에는 ‘전국 영업점장회의’에서 식전 공연을 했고, 이 외에도 ‘관내 지역본부 최고경영자회의’ 식전 공연, 결성 1주년 콘서트, 송년 음악회, 야외 버스킹 등을 진행했습니다. 이러한 활동이 멤버들에게 정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Q. ‘WE ARE’ 결성 2주년 콘서트’를 개최하셨습니다. 준비 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A. 5월 18일 공연 일정이 확정된 후, 공연장 대관부터 선곡 작업, 초청장 제작, 발표 PPT 제작, 관객 모집, 수차례에 걸친 리허설, 공연 대비 버스킹까지 정말 많은 과정이 있었지만, 팀원 각자가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주말도 반납하고 연습에 매진한 결과, 공연을 잘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아마추어다 보니 전반적으로 기타 연주와 보컬 실력 그리고 공연을 진행하는 기술이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공연장을 채워주신 관객분들에게 “성공적인 공연이었다”라는 칭찬과 격려를 들으니, ‘무(無)에서 유(有)’를 창조했다는 만족감과 IBK 직원분들에게 마음의 위안과 힐링을 선사했다는 점에서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공연장에 방문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무(無)에서 유(有)’를 창조했다는 만족감과 IBK 직원분들에게 마음의 위안과 힐링을 선사했다는 점에서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Q. 회원들에게 바라는 점은 무엇인가요?

A. 회원들에게 바라는 점이 있다면, 아프지 말고 우리가 하고 싶은 멋진 음악들을 오랫동안 함께 하자는 것입니다. 특히, 창원에서 부산 연습장까지 그 빠듯한 일정 속에서도 모임 때마다 단 한 번의 결석도 없이 자리를 함께하고 있는 이병철 지점장님을 비롯하여, 공연 때마다 아름다운 피아노 선율로 관객의 귀를 즐겁게 해주는 천재 피아니스트 최순영 차장, 그리고 모든 공연의 마에스트로 역할을 자처하며 호소력 있는 보이스로 공연의 처음과 끝을 알리는 ‘WE ARE’의 전속 MC 최유화 차장, 또 우리 밴드의 굿은 살림살이를 도맡아 하는 현수환 팀장님과 회원들에게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지금처럼 계속 노래해요.

Q. ‘WE ARE’의 목표가 궁금합니다.

A. 작년 연말부터 2024년 5월 18일에 열린 ‘결성 2주년 콘서트’까지 정말 많은 무대에 오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공연할 때마다 “아직 많이 부족하다”라는 생각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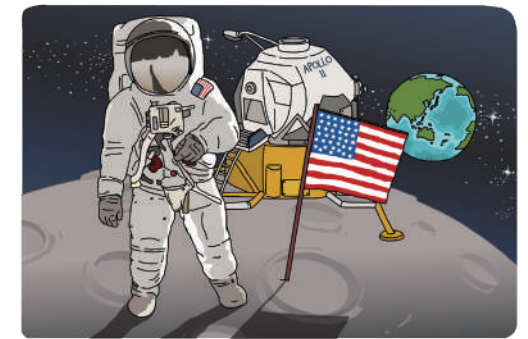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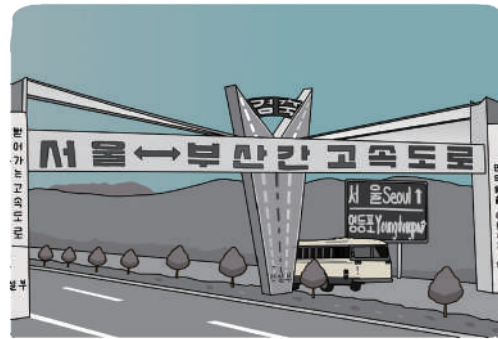
합니다. 그래서 5월 18일 ‘결성 2주년 콘서트’ 이후에는 좀 더 기타와 보컬 실력을 다지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올해 연말 전까지 버스킹 위주로 내실을 다진 후, 12월에 송년 콘서트와 소외계층을 위한 조그만 콘서트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Q. 마지막으로 통기타에 관심이 있으나 쉽게 도전하지 못하는 IBK인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A. 생각하고 꿈꾸다고 모두 이를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꿈꾸지 않고 이를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고 했듯이, 지금 당장 기타 한 대 구매해 연주해보시길 바랍니다. 처음엔 조금 부족하고 실수도 있겠지만 어느 순간 경지에 도달해 있는 나 자신을 보며 뿌듯해하고 계실 거라 확신합니다. 또한, 같은 꿈을 꾸는 사람들과 이 감정을 공유한다면 더 여유 있는 미래를 열어나갈 수 있을 겁니다.

July in History

7월에 일어난 이야기



Big Issue

7월, 세계 각국에선
또 어떤 일이?
한 줄로 보는
그날의 이슈

- 1일 1967년 유럽 공동체(EC) 결성
- 2일 1896년 대한제국 독립협회 결성
- 5일 1687년 아이작 뉴턴의 <자연철학의 수학적 원리> 출판
- 8일 1889년 월스트리트 저널 초판 발행
- 13일 1930년 첫 번째 FIFA 월드컵 개최
- 16일 1951년 J.D 셀린저의 <호밀밭의 파수꾼> 발간
- 19일 1900년 파리 메트로 1호선 개통
- 29일 1836년 파리 에투알 개선문 준공
- 30일 1932년 제10회 하계 올림픽 개막

06day

달러, 미국 통화 단위로 채택

달러는 미국에서 통용되는 화폐로 'USD'라고 표기한다. 보통 달러 기호인 \$로 축약하며 다른 국가의 달러와 비교할 때는 'US\$'라고 쓴다. 1785년 미국의 화폐로 지정된 이후, 미국 달러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널리 통용되는 화폐가 됐다. 특히, 비자카드, 마스터카드 등 신용카드 전표 매입, WTI 등 국제 원유 거래 등에서는 미국 달러로만 결제가 가능하다.

이날 프랑스에선?

1754년 북아메리카 대륙에서 오하이오강 영토를 둘러싸고 영국과 프랑스의 식민지 쟁탈 전쟁이 펼쳐졌다.

07day

경부고속도로 전 구간 개통

경부고속도로는 부산광역시 금정구 구서동을 기점,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을 종점으로 하는 국내 최장 길이의 고속도로다. 해당 고속도로는 1968년 2월 착공해 1970년 7월 완공됐다. 대전과 대구, 울산, 부산 총 4개의 광역시를 거치고 있어 '국토의 대동맥'으로 불린다. 한편, 본래 경부고속도로였던 양재 나들목~한남대교 구간은 2002년, 고속도로 구간에서 해제됐다.

이날 미국에선?

1898년 하와이 원주민들의 격렬한 반대가 있었으나 사탕수수 지주들의 찬성으로 미국이 하와이를 병합하는데 성공했다.

15day

닌텐도, 패밀리 컴퓨터 발매

패밀리 컴퓨터는 닌텐도에서 1983년 발매한 가정용 게임기로 패미컴 또는 FC로 불렸다. 북미와 유럽에서는 닌텐도 엔터테인먼트 시스템이라는 이름으로 발매됐으며 국내에서는 현대 컴보이로 출시됐다. 당시 패밀리 컴퓨터는 하드웨어 성능과 재미로 큰 인기를 얻어 전 세계 누적 판매량 약 6,191만 대를 기록했다. 닌텐도는 패밀리 컴퓨터 발매 후 세계적인 게임 기업으로 성장했다.

이날 이탈리아에선?

1823년 지붕용 납판자를 수리하던 중 화재가 일어나 산 파올로 대성전의 대부분이 소실됐다. 이후 복원에 충실, 1840년 재개장됐다.

20day

아폴로 11호 달 착륙

처음으로 달에 착륙한 유인 우주선이다. 아폴로 계획의 다섯 번째 유인 우주비행인 동시에 세 번째 유인 달 탐사다. 우주선에는 선장 닐 암스트롱과 사령선 조종사 마이클 콜린스가, 달 착륙선에는 조종사 버즈 올드린 이 탔다. 발사 후, 4일 뒤 달에 도착했으며 우주선에서 내린 암스트롱과 마이클 콜린스는 2시간 30분 동안 달 위를 걸어 다니며 달 모래 등을 채집했다.

이날 독일에선?

1944년 아돌프 히틀러에 반대하는 반(反)나치 인사들이 라슈텐베르크 암살 음모를 시도했다. 이후 이 사건은 <작전명 발키리>란 제목으로 영화화되었다.

잘 바른 선크림, 열 피부과 안 부럽다!

요즘처럼 햇살이 강해질 때, 선크림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된다. 하지만 이론만큼 선크림을 '제대로' 바르는 사람은 많이 없다.



☑ 귀찮아도 얇게 펴 바르세요

따가운 햇볕에 눈살이 절로 찌푸러지는 계절이다. 이 더위로부터 피부를 안전하게 지키려면 선크림을 꼭 발라야 한다. **선크림의 1회 사용 권장량은 성인 기준 0.8~1.2g이다. 권장량을 가시적으로 나타내면 검지 한 마디 또는 500원 동전 크기 정도다.** 미국피부과학회지에서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대부분의 사람이 선크림 권장량의 4분의 1만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적은 양을 바르면 자외선 차단 효과도 그만큼 줄어들므로 권장량을 지키는 것이 좋다. 선크림을 바르는 방식도 중요하다. 손가락에 적은 양을 올린 후, 얼굴을 두드리며 선크림을 얇게 펴트리듯 발라야 한다. 한 번에 모든 양을 바르면 뭉침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손으로 얇게 펴 바르는 게 어렵다면 메이크업 도구인 스패출러를 사용하는 것도 좋다.



☑ 귓볼과 구레나룻에도 선크림을

선크림을 바를 때 대부분 얼굴 중심이나 광대, 뺨 등 넓은 부위만 집중적으로 바르고, 턱선이나 구레나룻 등 얼굴 가장자리는 선크림을 바르지 않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턱선과 구레나룻은 피지가 적어 선크림을 바르지 않으면 피부가 쉽게 손상돼 싹틔줄이 거미줄처럼 확장하고, 기미와 잡티 등 색소 침착이 생기기 쉽다. 때문에 **피지 분비가 거의 없는 귀와 귓볼, 구레나룻, 턱선, 목에도 선크림을 반드시 발라야 한다.** 선크림 효과를 제대로 보고 싶다면 높은 지수의 선크림을 한 번 바르는 것이 아닌 2시간마다 덧바르는 것을 추천한다. 땀과 유분에 선크림이 닳을 수 있기 때문이다.

선크림의 유기자차 vs 무기자차의 원리

유기자차의 원리



- 발림성이 중요한 분
- 백탄현상 덜한 것이 좋은 분

무기자차의 원리



- 자극 덜한 선크림을 찾는 분
- 즉시 차단효과를 원하는 분

여름을 더 고유하게 즐기는 휴가 트렌드



가장 생동감 넘치는 계절 여름이다.
 역대급 폭염과 폭우가 예고됐지만,
 창밖 풍경으로만 즐기기엔 여름이 아쉽다.
 무더위의 초입에서 새로이 마주해야 할 여행 방식을 소개한다.



호캉스는 기본,
 이제는 차별화

호텔에서 여유롭게 휴가를 즐기는 호캉스는 이제 여름휴가의 기본이 됐다. 다만, 몇 해 전만 해도 호캉스의 초점이 조식과 인피니트 풀에 맞춰졌다면 최근 들어 **다양한 볼거리와 먹거리 등 콘텐츠를 앞세운 숙박시설이 생겨나면서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부티크 호텔’과 ‘특급호텔’이 더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여기에는 물가 상승이 지속되면서 한 번의 경험에서 일반 서비스 그 이상의 가치를 누리려는 니즈도 포함되어 있다.

부티크 호텔은 일반 비즈니스 호텔과 비교해 ‘콘텐츠 차별화’에 중점을 둔 호텔로 독특하고 개성 있는 건축 디자인과 인테리어, 서비스, 음악 페스티벌이나 미식 프로그램, 영화 관람 등의 이벤트를 진행해 보통의 호텔과 차별점을 가진다. 이처럼 연회장과 수영장, 5개 이상의 레스토랑 등을 갖추고 있는 일반적인 특급호텔과 다르게 부티크 호텔은 시설 등의 하드웨어보다는 차별화된 소프트웨어에 집중하는 것이 특징으로, 소규모 파티나 4인 가족 여행 등 여행객 특성에 맞춘 온돌형 객실, 풀사이드 라운지 등도 대표적인 서비스 항목 중 하나다.

호캉스라는 개념이 점점 대중화되면서 이제는 단순 럭셔리가 아닌 차별화된 서비스에 집중하는 숙박시설이 많아지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고물가, 고금리 등으로 호텔의 높은 가격을 꺼리는 사람들이 때문에 호텔 업계는 ‘숏캉스’, ‘반차캉스’ 등 휴식보단 특별한 경험을 즐길 수 있는 서비스를 계속해서 출시 중이다.



**여행도 이젠
알뜰살뜰하게!**

지속되는 고물가, 고금리 영향으로 여행 트렌드가 조금씩 바뀌고 있는 가운데 ‘가성비를 내세운 여행’을 뜻하는 단어가 등장했다. **‘세이버케이션’은 절약을 의미하는 ‘세이프(Save)’와 휴가를 뜻하는 ‘베케이션(Vacation)’을 합성한 신조어로,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해외여행을 즐기려는 경향이 반영된 말이다.** 여기에는 일상 회복에 따라 증가한 해외여행에 대한 니즈와 높은 물가와 불확실한 경제 상황의 영향으로 알뜰한 소비를 지향하는 트렌드도 담겨 있다.

이와 관련, 글로벌 호텔 검색 플랫폼 ‘호텔스컴바인’이 2023년 4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기간의 해외 호텔 및 항공권 검색량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3성급 호텔의 검색량은 전년 동기 대비 28% 증가한 반면, 5성급 호텔에 대한 검색량은 30%가량 줄었다. 이는 설문조사 기준 지난해인 2022년 프리미엄 서비스를 제공하는 4성급과 5성급 호텔들이 전체 검색량의 대다수를 차지한 것과 대비되는 수치다.

이 결과로 미뤄보아 코로나19 시기에 야외 활동이 제한되어 고급 호텔에서 지친 자신을 위로하는 ‘럭셔리 호캉스’가 유행했다면, 여행이 자유로워졌음에도 물가가 치솟음에 따라 가성비를 추구하는 ‘세이버케이션’이 여행 트렌드로 떠오른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비교적 저렴한 해외 여행지를 골라 가는 사람들이 늘어나자 경기도 다낭시, 부산 후쿠오카시 같은 말이 생기기도 했다.



**보다 더 즐겁고
건강한 휴가를**

이상기후의 여파가 피부로 느껴지기 시작하면서 ‘지속가능성’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과 실천 의지가 높아지고 있다. 지속가능성의 가치 판단과 실천 주체가 이제 개인 단위로 확장되는 것이다. 지속가능성에 대한 관심은 휴식과 힐링을 위해 떠나는 여행에서도 쉽게 관측된다. **글로벌 호텔 예약 플랫폼인 부킹닷컴이 발표한 ‘2024년 지속가능성 여행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응답자의 83%, 한국인의 78%가 지속가능한 여행을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응답했다.** 이는 지속가능성 여행이 개인에게 긍정적인 경험을 선사하고 향후 또 다른 지속가능성 여행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보여주는 결과다. 국내 여행과 숙박업계에서도 이러한 소비자 트렌드를 반영해 지속가능성을 실천할 수 있는 고체 치약, 샴푸바 등을 제공하고 있다.

지구 건강은 물론 정신 건강에 집중한 여행 또한 증가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휴식뿐 아니라 진정한 피로 해소와 재충전을 원하는 현대인의 욕구를 반영한다. 여행자들은 이제 칵테일 대신 무알코올 음료를 주문하고, 조용히 숙면할 수 있는 휴가지를 찾는다. 실제로 웰니스 관광의 시장 가치는 약 6,510억 달러에 이르며, 연간 16.6%의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 웰니스 중심의 여행 및 휴가는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정신적 안정을 제공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어 바쁜 일상에서 휴식과 재충전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현대 사회의 자연스러운 여행 트렌드로 완전히 자리잡을 것으로 보인다.

소통·정보·서비스, 삼박자를 고루 갖추다 서귀포지점

오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서귀포지점은 동에서 서까지 편도 1시간 30분이 걸리는 넓은 지역을 전담하고 있다. 먼 거리에서도 지점을 믿고 방문하는 고객들을 위해 양질의 서비스는 물론, 맞춤형 정보까지 제공 중이다. 덕분에 서귀포지점을 방문하는 고객들의 표정은 살랑살랑 불어오는 제주 바람을 닮아있다.



QR코드를 스캔하면 <with IBK>를 영상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오늘의 환율
EXCHANGE RATE

종류	미국	일본	중국	홍콩	대만
달러	1407.00	109.100	15.100	168.00	130.00
엔	135.10	100.00	100.00	100.00	100.00
위안	21.200	7.200	100.00	100.00	100.00
달러	127.00	100.00	100.00	100.00	100.00
엔	127.00	100.00	100.00	100.00	100.00
위안	127.00	100.00	100.00	100.00	100.00

5
개인고객

최남단을 지키는

점포

1982년 문을 연 서귀포지점은 IBK기업은행 최남단에 위치한 지점으로 서귀포시의 서쪽인 대정부터 동쪽에 자리한 성산까지 광범위한 지역을 담당하고 있다. 동에서 서까지 차로 1시간 30분 걸리는 위치 중간에 자리한 서귀포지점은 변함없는 서비스로 금융 업무 관련 고객들의 손과 발이 되어주는 중이다.

서귀포지점은 제주도 특성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영어조합법인과 거래 비율이 높으며, 관광지역 특성상 소상공인도 많다. 인구밀도도 넓게 퍼져 있으며, 골과 레드향 등 과수원을 하는 고객들이 많기에 수확 시기엔 은행 방문이 어려운 고객이 손꼽을 수 없을 정도로 많다. 이에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BoxPos 마케팅을 시도하고 있다. BoxPos는 은행 방문 없이 24시간,

언제 어디서든 결제 가능한 IBK기업은행의 모바일 결제 포스기로 자영업자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다고. 이외에도 서귀포지점은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개인고객부에서 주관하는 개인영업코칭을 받아 서귀포지점 특성에 맞는 전략 및 마케팅 방안을 구축하고 있다.

서귀포지점은 IBK기업은행 최남단에 위치한 지점으로 서귀포시의 서쪽인 대정부터 동쪽에 자리한 성산까지 광범위한 지역을 담당하고 있다.



Strategy





**한마음 한뜻으로
이루는 성과**

서귀포지점은 고객에게 더 나은 점포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규정이 개정되거나 새로운 제도가 시행되는 경우 전 직원이 내용을 공유해 일관성 있고 정확한 업무처리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그 결과, 2024년 4월 말 기준 S등급으로 중기대출 (A-이상) 266%, 기술금융 477%, 창업기업 434%, 외국환 161%를 달성했다. 이 외에도 척박한 점주 환경을 극복하기 위해 신규업체 발굴에도 온 힘을 기울이고 있다.

또 전 직원이 카드미션왕에 도전해보자는 공감대를 형성해 내점 고객의 점포는 물론, 자택 인근 가게까지 방문한 결과, 카드미션왕 3월 4위, 4월 8위의 성과를 달성했다. 아울러, 혁신창업기업 [내·가·대] 마케팅 우수지점 선정됐으며 지역본부 중점 추진사항인 잠재부실 사전 관리에서 관내 1등을 달성하는 등 여러 성과를 달성하는 중이다.

Accuracy



규정이 개정되거나 새로운 제도가 시행되는 경우 전 직원이 내용을 공유해 일관성 있고 정확한 업무처리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Fellowship

탁 트인 풍경처럼 시원한 서비스 제공

서귀포지점의 강점은 끈끈한 유대감과 소통, 팀워크다. 매일 소통의 시간을 가져 서로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체계적인 업무 보고를 통해 직원 부재 시에도 업무가 처리될 수 있도록 한다. 고객을 1순위로 여기는 서귀포지점의 모토는 “기쁨은 더해서 두 배! 슬픔은 나눠서 반”으로, 어려운 일을 맡은 동료가 있으면, 주변에서 발 벗고 도와주며 문제를 빠른 시간 내에 처리하려 노력한다.

서귀포지점의 10번 동의서 수취비율은 약 70%로, 이는 타지점 평균 대비 4배 이상 높은 수치다. 이를 토대로 고객에게 적극적인 마케팅을 진행하여 고객기

반은 물론 더 나아가 많은 부가거래를 창출하는 지점이 되는 것이 목표다.

북쪽으론 울창한 한라산과 남쪽으론 에메랄드 바다를 품고 있는 서귀포지점은 사람들의 마음을 확 트이고, 편안하게 만드는 자연 풍경처럼 서귀포지점을 방문하는 고객의 마음을 편하게 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계속해서 제공할 계획이다.

서귀포지점은 사람들의 마음을 확 트이고, 편안하게 만드는 자연 풍경처럼 다양한 서비스를 계속해서 제공할 계획이다.



Mini Interview



소통을 제1원칙으로

고객뿐만 아니라 직원이 행복하고, 출근하고 싶은 서귀포지점을 만들기 위해 소통을 통한 팀워크를 항상 강조하고 있습니다. MZ세대, 꼰대 등 세대를 지칭하는 말들이 많지만 저희는 그 단어에 매몰되지 않기 위해 직원들과 종종 티타임을 갖고 있습니다. 덕분에 부족한 부분은 서로 채워주며, 모든 일을 내 일처럼 여기며 업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소통을 진행해 서귀포지점을 제주도는 물론, 전국에서 제일 잘나가는 지점으로 발전시키겠습니다.

행복한 여름 보내세요~

서귀포지점은 바다와 매우 밀접한 지점입니다. 차로 3분 거리에 드넓은 바다가 펼쳐져 있어 업무를 마치고 함께 바닷가를 산책해 스트레스를 풀기도 합니다. 저희도 바다를 보며 앞으로 나아갈 힘을 얻고 있는 만큼 더운 여름, 서귀포에 놀러 오셔서 제주 바다처럼 맑고 밝은 추억 만드시길 바랍니다.

정선녀 지점장



감사와행복

고희숙 부지점장



돈돈한가족

김지은 대리



바로바로나

박서연 대리



행복한인생

내 삶의 중심은



입니다!



윤의숙 차장



행복쇼핑오

박석순 과장



가족의행복

김성미 과장



소중한사람

윤명선 대리



평범한일상

송은숙 계장



행복한가정

고연화 경비원



내딸랑구들

Value Up with SIZ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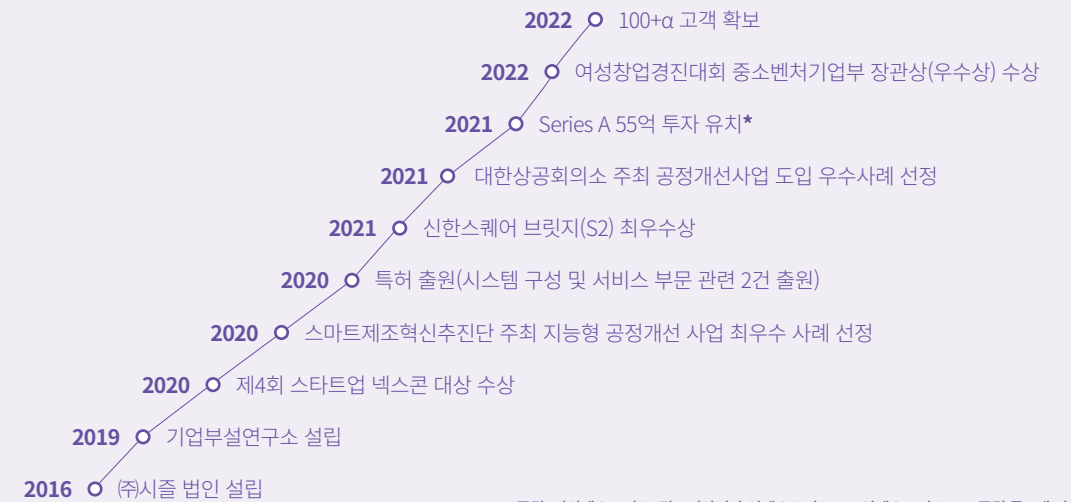


스마트한 공장관리, (주)시즐의 솔루션으로 해결하세요

(주)시즐 이지현 대표
송도테크노파크지점 거래 기업



제조업 강국인 한국은 제조 공정 자동화라는 과제를 꾸준히 안고 있다. 하지만 대기업이 아닌 이상 디지털 기술 도입은 쉽지 않다. 이미 구축한 장비와 시설을 디지털로 전환하려면 투자금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런 중소·중견 제조업체의 스마트공장 솔루션을 이끄는 업체가 있다. 한국 경제의 근간이 되는 제조업의 빠른 디지털화를 지원하는 (주)시즐은 제조업과 함께 상생하며 무럭무럭 성장 중이다.



* SK증권, 티인베스트먼트, 린드먼아시아 인베스트먼트, HB인베스트먼트, KB증권 등 5개 기관

노후화된 기기에 스마트 컨트롤러를 심다



(주)시즐은 2016년에 설립하여 현재 9년 차의 업력을 가진 기업으로, 주로 제조업의 공정 최적화를 돕는 스마트팩토리 솔루션을 개발 및 공급하고 있다. 국내 중소·중견 제조업체들을 대상으로 공정 분석 솔루션을 통해 제조기업의 공정 데이터를 면밀하게 분석하고, 생산 효율성을 개선한다. 이지현 대표가 (주)시즐을 창업하며 ‘제조업 대상의 스마트팩토리 솔루션’을 선택한 것은 한국이 GDP 비중이 30%에 육박하는 제조업 강국이기 때문이다.

“제조업은 국내에서 빼놓을 수 없는 주요한 산업군이고 변화가 필요한 산업입니다. 그럼에도 제조산업의 변화를 돕는 핵심기업이 부재하다는 사실이 저의 도전 의식을 일깨웠고, 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선도하는 것이 저의 목표가 되었습니다.”

(주)시즐은 기업이 가진 예산과 장비에 맞춰 현명한 디지털 전환을 이끌어 낼 과제를 공정개선 솔루션을 통해 해결하고 시장의 메인 플레이어가 되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현재 제조산업의 공정 분석 개선 솔루션을 공급하고 있는데, 쉽게 말하자면 노후화된 기기에 컨트롤러를 삽입해 데이터를 추출하는 것이다.

컨트롤러는 사람의 두뇌 역할을 해 공정 데이터를 추출한다. 이로 인해 공정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알림과 함께 효율화할 방안을 분석해 기기 자체를 스마트화하는 것이다. 이러한 스마트팩토리 공정개선 솔루션을 제공하고, 이후 공정 개선 상에서 확보된 데이터를 가공·분석하는 AI 솔루션까지 제공하고 있다.

“(주)시즐이 제시하는 스마트팩토리 공정개선 솔루션의 장점은 컨트롤러 기반으로 한 데이터 수집이라는 점에 있습니다. 타 업체의 접근 방식인 외부 센서를 사용하면 간접 데이터를 취득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주)시즐의 컨트롤러는 데이터를 직접 취득할 수 있어서 더 많은 종류의 데이터를 정확하고 일관성 있게 수집할 수 있어요. 단순히 데이터를 정확하게 많이 수집하는 데에서 더 나아가 AI 모델을 고도화하는 데 최적화되어 있다고 할 수 있죠.”

생산관리시스템(MES) 운영의 차별화도 (주)시즐의 강점 중 하나다. (주)시즐의 MES는 초당 20번이 넘는 횟수로 데이터를 추출해 자동으로 분류하고, MES 시스템에 전송되어 작업자의 추가 개입 없이 시스템이 구동될 수 있도록 만들었다.



제조업과 함께 성장하는 (주)시즐



(주)시즐이 ‘스마트팩토리 공정개선 솔루션’이라는 컨셉으로 개발을 시작할 때만 해도 기존 노후화 기기에 컨트롤러를 심는다는 개념은 전무후무했다. (주)시즐의 개발진조차 초기 단계에는 불확실성과 기술적 문제로 골머리를 앓았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소통했고, 마침내 기술 개발에 성공했다.

(주)시즐의 솔루션은 공정의 생산성은 물론, 공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문제에 대해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조치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실제로 생산성이 50% 상승한 업체부터 불량률을 1/3까지 줄인 업체 등 가시적인 여러 성과가 스마트팩토리 공정개선 솔루션의 우수성을 입증하고 있다.

“현장에서 다양한 개선 사례를 쌓아 나가고 있습니다. 고객사 중 한 기업은 생산 과정에서 육안검사로 잡아 내지 못한 불량품이 원청사까지 올라가, 완성품에 대한 금액을 배상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주)시즐의 솔루션을 도입하고 동일한 케이스가 발생하지 않아 불량률을 개선한 것은 물론이고 그만큼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죠. 또 별도 공정 관리를 위한 모니터링



시스템이 없는 회사가 있었는데요. 고장이 발생하기 이전까지는 문제점을 파악하지 못했고 이로 인해 생산성 저하와 작업자 안전 이슈까지 대두되었죠. 그런데 (주)시즐의 시스템을 도입하고 가동 중인 프레스의 문제를 즉시 파악하여 비용 절감과 함께 작업자의 안전 이슈까지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솔루션을 통해 고객사의 여러 문제점을 파악·개선할 때마다 뿌듯함을 느낀다는 이지현 대표. 고객으로부터의 긍정적인 피드백은 (주)시즐의 가장 큰 보람이기도 하다.

현재 (주)시즐은 140여 개의 고객사에 스마트팩토리 공정개선 솔루션 보급을 완료하였으며 매년 60여 개가 넘는 고객사가 신규로 들어오고 있다. 매출액은 2023년도 기준 약 190억 원 수준이었는데, 2020년 28억 원보다 700%나 상승한 수준이다. 그간 다양한 고객사를 만나며 꾸준히 데이터가 축적되었고, 더욱 가파른 성장을 위한 양분이 준비되었기 때문이다.

(주)시즐의 특징

Step. 1

노후 기기에 직접 삽입하는 컨트롤러

더 많은 종류의 데이터를 정확하고 일관성 있게 수집

Step. 2

차별화된 생산관리시스템

자동으로 초당 20번이 넘는 횟수로 데이터를 추출해 분류

Step. 3

유연하게 개방적인 조직문화

평소 자유로이 의견을 나누는 건강한 조직문화 추구

함께 성장하며 세계로



현재 (주)시즐은 약 30명의 구성원으로, 스마트팩토리 솔루션을 개발하는 개발본부,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본부, 사업전략을 담당하는 기획부서로 조직이 구성되어 있다. 젊은 대표가 이끌어가는 회사인 만큼 유연하고 개방적인 조직문화를 가지고 직원들이 창의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주)시즐은 직원의 ‘성장’과 ‘협력’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조직 구성원의 성장이 결국 회사의 성장에 기여한다고 믿거든요. 더불어 서로가 협력해 시너지를 거둘 수 있도록 평소 자유로이 의견을 나누고 건강한 조직문화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해외 진출을 구체화할 계획도 가지고 있다.

해외 벤처 캐피탈과 사모펀드의 투자 유치도 고려 중이다. 자본력과 축적된 데이터를 통해 제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주)시즐의 솔루션을 통해 제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장기적인 목표다.

“우리의 비즈니스 모델은 해외에서도 충분히 통할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이미 해외 진출에 대한 전략을 구상해 실행 단계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제 제조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솔루션을 개발하고, 유수의 제조기업과 함께 성장해온 (주)시즐. 이제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 그 열정적인 행보를 이어 나갈 (주)시즐의 내일을 응원한다.



IBK와의 탄탄한 유대, (주)시즐의 소중한 자산입니다.



Q. 대표이사님의 경영 철학은 무엇인가요?

A. (주)시즐의 사업모델에도 적용되는 ‘혁신을 통한 가치실현’입니다. 급변하는 사회적 변화 속에서 (주)시즐은 스마트팩토리 솔루션을 통해 제조산업의 스마트혁신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끊임없는 혁신과 도전을 통해 더욱 정교해진 솔루션을 개발하여 제조산업의 혁신을 선도하고, 나아가 제조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입니다.

Q. IBK기업은행과의 인연은 어떻게 시작되었나요?

A. 송도테크노파크지점과 고성재 지점장님과의 인연은 회사 사무실을 송도로 옮기게 되며 시작되었습니다. 주거래 은행을 옮기는 시점에 IBK기업은행에서의 투자유치까지 진행되며 유대감이 더욱 깊어졌습니다. 은행장님이 주최한 간담회를 통해 우리 고객사들이 겪는 어려움을 파악하고, 단순히 금융거래에 국한되지 않은 그 외의 영역에 대해서도 협력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IBK기업은행과 고성재 지점장님께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며, 이 소중한 인연이 계속해서 유지되기를 바랍니다.



(주)시즐 이지현 대표

제조업의 디지털 전환을 선도해 나가는 시즐! 미래가 기대되는 젊은 기업입니다.



Q. 송도테크노파크지점을 소개해주세요.

A. 송도테크노파크지점은 국내 최초 경제자유구역 송도 국제도시라는 점주 특성에 맞게 다수 국내 주요 대기업 및 글로벌 기업들을 고객사로 두고 있는 전략적 점포입니다. 직원 간 끈끈한 팀워크와 반도체, 바이오 및 드론 등 다양한 첨단 신사업 분야에 대한 깊은 이해도, 그리고 적극적인 유관기관 협업을 통해 고객사들의 높은 만족도를 끌어내며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전 직원 모두 가능성을 바라보며 도전하는 자세로, 고객과 함께 끊임없이 혁신하는 은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니,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Q. (주)시즐의 비전과 강점은 무엇일까요?

A. 이지현 대표는 (주)시즐의 창립자이자 현 대표이사로, 스마트팩토리 토탈 솔루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 과거 사업 실패를 경험한 후 제조업의 디지털 혁신 필요성을 인식하고 2016년 (주)시즐을 설립하였으며, 자체 개발한 컨트롤러 및 독자적인 기술력 확보를 바탕으로 다양한 제조업체에 맞춤형 스마트팩토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CEO의 비전과 실행력에 기반한 강력한 리더십, 그리고 IBK의 간접투자자 단계별 금융지원을 통해 급성장한 (주)시즐은 앞으로도 제조업의 디지털 전환을 주도적으로 선도해 나갈 것입니다.



송도테크노파크지점 고성재 지점장

먹을 갈고 글씨 쓰며 마음을 닦다

그윽한 묵향을 담은 삶

(주)동원특수화학 황재철 대표
반월중앙기업금융지점 고객



서예는 진한 먹 향과 섬세한 붓의 움직임이 조화를 이루는 예술이다. 이는 고요한 명상과도 같다. 붓이 종이에 닿을 때마다 마음이 평온해지고, 그 마음을 담아 붓끝에서 한 획, 한 획 써 내려가는 글자는 아름답기 그지없다. 고요한 움직임 속에서 자신을 찾아가는 과정, 서예. 이는 황재철 대표의 삶과 꽤 닮았다.



한양대 역사상 최고령 박사

석박사 과정 마치고 다시 붓을 잡다!

황재철 대표는 그의 집 서재에서 취재진을 맞았다. 서재 벽면에는 수묵화와 유화가 걸려 있었고, 책으로 가득한 책장이 한쪽 벽을 채우고 있었다. 가족과 찍은 사진들도 눈에 들어왔다. 책상 위에는 먹, 붓, 화선지, 문진 등의 서예 도구들이 정갈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먹 묻은 붓과 글자를 쓰다가 만 화선지도 눈에 들어왔다. “지난 몇 년간 석박사 공부하느라 서예를 하지 못했어요. 그전에는 시간이 날 때마다 틈틈이 붓을 잡았고, 또 간간이 전시회도 했었죠. 그래서 지금 열심히 연습하고 있었어요.(웃음)”

수북하게 쌓인 화선지를 보여주며 황재철 대표는 수줍게 미소 지었다. 자동차에 들어가는 터치 키패드를 제조하는 기업인 (주)동원특수화학을 이끌어온 황재철 대표는 그의 말처럼 늦은 나이에 다시 학업에 전념해 박사를 취득했다. 그래서 ‘77세에 책가방 메고 학교 간 사장님’, ‘한양대 최고령 박사’로도 유명해졌다. 황재철 대표는 지난 2월 한양대학교 교정에서 박사학위 졸업

가운을 입었고 한양대 역사상 최고령 박사학위 수여자가 됐다. 서예에 관한 이야기를 하기 전, ‘왜 늦게 다시 공부를 시작했는지’가 문득 궁금해졌다.

“중국의 한 고전에서 ‘삼불후(三不朽)’라는 단어를 접했습니다. 삼불후란 ‘썩지 않는 세 가지’란 뜻으로 공(功), 덕(德), 말(言)을 의미합니다. 해석하자면, 업적을 남기고 인격을 남기고 글을 남기라는 의미입니다. 제 지난 삶을 돌아보니 글을 남기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흔을 훌쩍 넘긴 나이에 다시 학교에 간 이유입니다.”

황재철 대표가 쓴 논문은 <운동주 시의 장소성에 관한 연구>로, 운동주의 시적 요람인 북간도, 평양, 교토, 후쿠오카를 거치며 견고한 생명력으로 탄생한 시인의 삶과 시를 탐구했다. 황재철 대표가 박사 과정을 경영이 아닌 문학을 택한 이유도 삼불후의 깨달음과 맥을 함께한다.



**서예는 정갈한 마음으로 먹을 갈고
화선지를 반듯하게 펼치고
붓으로 한 획, 한 획을
그을 때마다 마음의 중심을
잡아야 한다.**

붓을 통해 만나는 또 다른 세상

황재철 대표가 서예에 마음을 두게 된 건 어린 시절의 기억 덕분이다. 그는 머릿속에 생생하게 각인된, 오래된 기억을 떠올렸다.

“외갓집이 영양 남씨의 종갓집이었어요. 어머니를 따라 외가에 가면 대청에서 할아버지께 한학을 배우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저도 외가에서 할아버지께 천자문을 배웠지요. 그러면서 붓을 잡기 시작했어요. 나이가 들어 객지에 나와 있으니 그 기억이 자꾸만 떠오르더군요. 그래서 서예를 시작한 거예요.”

서예는 인내와 수양을 동반하는 작업이다. 강한 집중력도 요구된다. 정갈한 마음으로 먹을 갈고 화선지를 반듯하게 펼치고 붓으로 한 획, 한 획을 그을 때마다 마음의 중심을 잡아야 한다. 붓을 잡고 물입하자면 끝이 없다. 그렇게 몸과 마음을 다해 붓끝에 온 신경을 집중하다 보면 이내 정신이 맑아진다. 황재철 대표는 “이것이 바로 서예의 매력”이라고 했다.

“서예는 붓끝에 먹을 먹이는 것부터가 시작입니다. 먹이 넘치면 종이 가 젖고, 먹이 모자라면 붓이 힘을 잃고 말지요. 서예는 유화처럼 고칠 수가 없어요. 작은 실수도 바로 드러나죠. 또한 서예는 팔과 손으로 쓰는 게 아니라 몸으로 써야 합니다. 손과 몸, 그리고 내 생각이 맞아떨어질 때 좋은 글씨를 쓸 수 있어요. 이걸 쉽지 않은 일이에요. 저는 그 어떤 일보다 서예가 가장 어려워요.”

서예는 글자의 예술이다. 붓의 움직임에 따라 변하는 글자의 형태와 질감은 단순한 글자가 아니라 생명력이 느껴지는 하나의 존재가 된다. 매끄럽게 흐르는 선과 힘 있게 찍힌 점들 사이에서 황재철 대표는 자신의 마음을 풀어놓는다.

사랑하는 아내, 설악산 촛대바위, 자신이 나고 자란 시골집, 관악산에서 만난 꽃 등 그가 그린 유화도 서예 못지않게 눈에 띄었다. 독학으로 공부하다가 홍대 미대 수원 캠퍼스에서 그림을 배웠다는 그의 말에 다시금 놀라게 된다.



: 당신의 품격

“젊었을 때는 어디 가서 무엇을 배우고 할 시간이 없었어요. 형편이 넉넉지 않았으니 더욱 그랬죠. 그래서 일하고 시간이 남을 때 틈틈이 책을 보가며 혼자 공부했어요.”

힘들고 어려운 와중에도 황재철 대표의 삶의 낙은 책을 읽는 것이었다. 지금까지 단 하루도 책을 안 읽어본 날이 없다는 그. 책이 제 삶을 지탱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요!”

한 획, 한 획 글자를 쓰듯 삶을 소중히 가꿔야 해

붓을 잡고 한 획, 한 획 정성 들여 글자를 쓰는 시작한 황재철 대표. 시나브로 그의 눈이 빛나기 시작했다. ‘정신일도 하사불성(精神一到 何事不成)’. ‘정신을 집중하여 노력하면 어떤 어려운 일도 성취할 수 있다’는 뜻의 이 말은 그의 삶 전체를 관통한다.



황재철 대표는 1977년 20대의 나이에 직원 3명으로 고무 제품 사업을 시작했다. 50여 년이 흐른 지금은 자동차 터치 키패드 제품으로 국내 자동차 회사의 80%에 점유율을 차지할 만큼 크게 성장했다. (주)동원특수화학은 머지않아 설립 50주년을 앞두고 있다.

“어린 시절, 집이 정말 가난했어요. 제 자식에게만은 가난을 물려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신일도 하사불성’의 마음으로 살아왔습니다. 어쩌면 가난이 저를 키운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유복한 가정에 태어났다면 제가 평생 가졌던 ‘절실함’이 없었을 겁니다.”

황재철 대표가 또다시 붓을 잡았다. 이번에는 ‘화명고토(花明故土) 청풍만리(淸風萬里)’라는 글자를 힘 있게 써 내려갔다. ‘꽃처럼 아름답게 이 땅을 지켜라. 바람은 무엇으로도 막을 수 없다. 황재철 대표가 마음속 이야기를 전했다.

“삶을 어떻게 살아가갈 것인가 목표를 세우고, 하루하루 목표를 이루기 위해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울러 몸뚱어리의 때는 묻어도 되고 낡은 옷도 상관 없지만, 정신의 때는 절대 남겨선 안 됩니다. 정말로 소중히 가꿔야 할 건 몸이 아니라 마음과 정신입니다.” 황재철 대표의 말은 그의 글씨만큼이나 마음의 울림으로 다가왔다. 그가 쓴, 선과 면이 조화를 이루는 글자를 다시금 바라보게 되었다. 마음속에 아름다운 꽃 한 송이가 피어나는 듯한 기분이었다.



끊임없이
성장하는



IBK항공 기업



음악 워크스페이스

STELA

스텔라뮤직

콘텐츠 제작자가 음악을 선곡하고, 이용 허락 과정 및 서류 작성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돕는 서비스



stelamusic.com



데이터 예측 기반 낚시 솔루션

SGMA

애쓰지마

인공지능을 통해 낚시 인구와 낚시 산업을 효과적으로 연결시키는 피싱 내비게이터 제공 스타트업



sgma.io



소리 인식 기반 악보 학습 플랫폼

CLEBRAIN

클레브레인

음악 학습을 실시간으로 도와주는 소리 인식 기반의 대화형 레슨 AI 서비스 플랫폼 운영 기업



pianokiwis.com



산업용 빅데이터 플랫폼

ingkle

잉클

잉클은 산업용 데이터 플랫폼을 공급하는 기술 기업으로, 제조 현장의 다양한 데이터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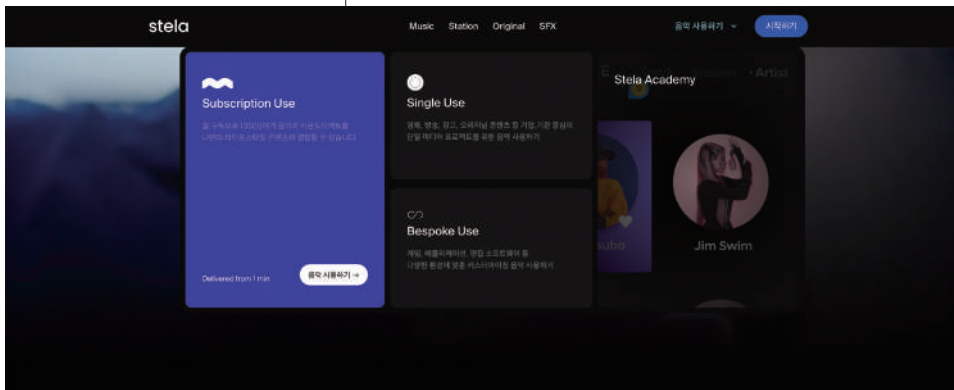
ingkle.com



스토리텔러를 위한 뮤직 워크스페이스

STEL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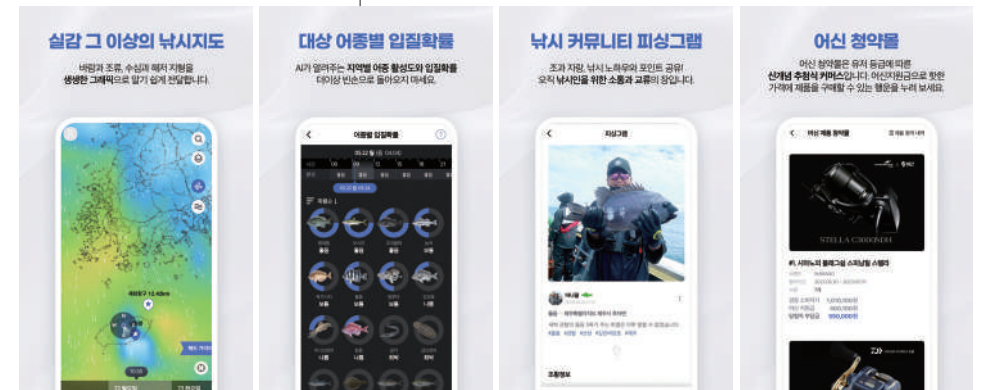
최근 들어 음악은 멜론, 플로, 벅스 등 스트리밍 플랫폼을 이용한 듣는 음악에서 넷플릭스, 유튜브, 트위치 등의 플랫폼에서 사용되는 '사용하는 음악'으로 범위를 확장하고 있다. 사용하는 음악은 매년 22%씩 성장하는 추세이며, 음악시장 역시 매일 450억 원의 활성 거래를 기록하고 있다. 하지만 저작권 인식이 강해지면서 보고 의무, 법률 분쟁 등의 문제로 아이돌 음악, 트로트 등 대중음악을 OTT 등에서 사용하기란 어려운 실정이다. 하지만 스텔라뮤직만 있으면 해당 문제를 빠르고 안정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스텔라뮤직은 국내외 유명 대중음악을 콘텐츠(영화, 광고 등) 내 사용할 경우, 발생하던 복잡한 문제인 권리관계 및 서류 등을 자동화하여 최소 2주, 최대 2~3개월이 걸리는 싱크-저작권 계약을 3분 내로 처리할 수 있는 서비스를 구축했다.** 또한, 유튜브와 같은 영상 기반의 뉴미디어 창작자들도 대중음악을 자체 콘텐츠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구독 시스템도 준비하고 있다. 앞으로 스텔라뮤직은 커뮤니티 기능 및 구독 라이선스를 보다 발전시켜 출시할 계획이며, 미국과 캐나다로의 진출도 계획하고 있다.



데이터 기반 피싱 플랫폼

SGMA

애쓰지마는 인공지능을 통해 피싱 내비게이터를 제공하는 플랫폼 '어신'을 개발한 스타트업으로 TIPS·관광벤처·해양수산부 혁신기업 국가대표로 선정된 바 있다. 애쓰지마가 서비스하는 **애플리케이션 '어신'은 애쓰지마가 자체 개발한 알고리즘과 AI, 지역별 기상 빅데이터, 딥러닝 기술 등을 통해 지구온난화 및 환경 변화에 따른 지역별 어종 변화, 이동 경로, 기상 정보, 출조 정보 등을 상세히 제공해 1,000만 낚시 인구를 위한 정보의 집합체로 평가받고 있으며, 국내 온라인 낚시 플랫폼 중 최다 회원을 보유하고 있다.** 이 외에도 애쓰지마는 게임, 금융 등 다양한 기업과의 업무제휴를 통해 기존 낚시 사업자들과 전혀 다른 생태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 뿐만 아니라 낚시 선박 예약, 수산물 구매를 위한 조업 예약 등 연안 복합 어선 활용 구축형 통합 부킹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앞으로 애쓰지마는 컴퓨터, (주)코넷 등의 업무 파트너와의 서비스 매쉬업을 통한 새로운 가치 창출 등 부가가치 창출에 힘써 세계 5위 대한민국 낚시 시장 제패를 통한 아시아 메이저 토탈 피싱 플랫폼으로 도약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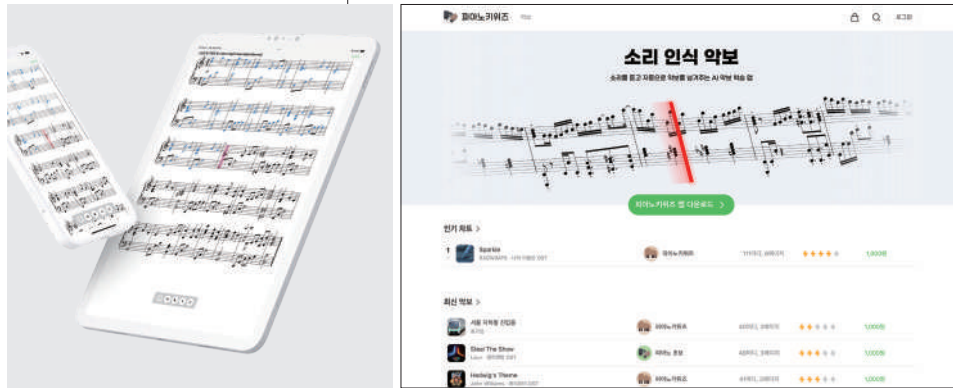




소통형 피아노 레슨 AI



현재 악보 거래 시장은 2조 원 규모지만, 아직도 악보를 프린트해 사용하거나 다운로드해 연주하는 사람이 많다. 그 중 종이 악보의 연주 데이터는 기록되지 않는 만큼 제품 경험을 세세하게 조사하기란 어렵다. 이에 클레브레인(클레브레인)은 연주 음원을 실시간으로 인식해 연주 위치를 추적하는 기술을 상용화해 특허 등록을 완료했다. **현재 서비스 중인 피아노키워즈는 소리를 인식해 연주를 추적하고 악보를 넘겨주는 솔루션으로 연주자들을 돕고 있다.** 클레브레인은 더 나아가 **구매한 악보가 사람들의 연주를 실시간으로 도와주는 미래를 만드는 것이 목표다.** 고객들이 그동안 오프라인에서 받았던 최상의 레슨 경험을 온라인에서 받을 수 없었던 이유는 연주에서 어떤 실수를 했는지, 연주 시범을 보며 옳은 방향으로 트레이닝하는 경험이 어려웠기 때문이다. 이에 어떤 악보를 사용하더라도 이 두 가지 경험을 겪을 수 있는 서비스를 올해 출시할 계획이다. 앞으로 국내를 비롯해 북미, 일본 시장에서의 악보 플랫폼 서비스 운영을 준비하고 있으며, 글로벌 1위 악보 플랫폼이 돼 악보 판매자, 이용자의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해 레슨 비즈니스까지 확장할 계획이다.



전원만 꽃으면 제조 현장 빅데이터화 가능



잉클은 세상에서 가장 작고 빠른 산업용 빅데이터 서버 어플라이언스인 Nzdata를 만드는 업체다. Nzdata는 제조 현장에 있는 다수의 장비 및 설비의 PLC에 직접 연결해 밀리초 단위로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고, 이를 클라우드로 보내지 않고 사업장 내부에 설치된 Nzdata 서버에 안전하게 저장하고 즉시 빅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사용자는 기본 제공되는 대시보드 화면을 통해 설비 효율과 공정관리 KPI를 모니터링할 수 있고, AI 추론 기능을 통해 학습된 AI 모델을 실시간으로 추론할 수 있다.** 또 Nzdata는 Data Lakehouse 구조로 설계돼 있어 시계열 데이터뿐만 아니라 이미지/영상, 텍스트 등 모든 유형의 데이터를 하나의 저장소에 저장할 수 있어 데이터 파편화를 방지하고 기업의 모든 구성원이 최신 제조 데이터에 접근해 고장예측, 생산예측, 시뮬레이션 등 생산성과 효율을 높이는 작업을 실행할 수 있다. Nzdata 기기를 도입하는 제조업체, 장비업체, AI 업체는 제조 현장의 데이터 수집 및 통합, 저장, 접근하는 환경을 온프레미스로 구성하는데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지 않을 수 있다.





면이 먼저냐, 스프가 먼저냐! 맛있는 라면 먹으려면?

언제 먹어도 맛있는 라면은 끓이는 사람에 따라 레시피가 천차만별이다. 면부터 넣는 사람, 스프부터 넣는 사람, 물이 끓기도 전에 모두 집어넣는 사람! 정말 맛있는 라면을 먹으려면 면과 스프 중 무엇을 먼저 넣어야 할까?



취향에 따라 다른 순서?!

한국인의 소울푸드인 라면은 남녀노소 모두가 좋아하는 음식인 만큼 레시피도 끓이는 사람에 따라 제각각이다. 특히, 면과 스프 중 무엇을 먼저 넣는 지는 현대의 난제라고. 사실 과학적으로 따져보면 면보다 스프를 먼저 넣었을 때 더 맛있는 라면을 먹을 수 있다. 스프 속 염분으로 물의 끓는 점이 높아져 약 1°C 더 높은 온도에서 라면을 끓일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면이 짧은 시간 안에 익으면 전분 구조가 덜 풀려 더 쫄깃한 면을 먹을 수 있다. 하지만 라면 판매 기업 중 하나인 농심은 1~3°C의 온도 차로는 맛 차이가 나지 않을뿐더러, 오히려 끓는 물에 스프를 먼저 넣으면 끓어오름 현상이 발생해 화상의 위험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국물이 빨리 끓으면서 스프의 맛이나 향이 날아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라면을 먹을 때 국물 맛을 중시하는 사람이라면 면을 먼저 넣고, 쫄깃한 면을 즐기는 타입이라면 스프를 먼저 넣는 것을 추천한다.

맛도 좋지만, 건강하게 즐기려면

세계라면협회 통계조사에 따르면 2022년 기준, 한국인의 1인당 연간 라면 소비량은 77개로 세계 2위다. 자주 섭취하는 라면을 조금 더 건강하게 먹는 방법은 없을까? 먼저, 라면에 양배추나 양파, 콩나물을 넣고 끓이는 것을 추천한다. 나트륨의 체외 배출을 도와주는 칼륨이 풍부한 채소들이다. 양배추는 비타민과 무기질이 풍부해 라면에 부족한 영양소를 보충해주고 양파는 혈액 속 불필요한 지방과 나쁜 콜레스테롤을 녹이는 퀘세틴이 풍부해 성인병 예방에 도움이 된다. 간혹, 라면을 먹을 때 느끼함을 잡기 위해 콜라를 마시는 경우가 있는데 라면과 콜라를 같이 먹다 보면 체내 인이 쌓이고, 칼슘이 줄어들어 골다공증을 유발할 수 있다. 라면을 더 건강하게 즐기고 싶다면 콜라 대신 우유를 마셔보자. 라면의 매운맛을 잡으면서도 부족한 칼슘을 보충할 수 있을 것이다.

Tip! 꼬들꼬들한 라면을 원하세요?

식초 넣기



라면을 끓일 때 식초를 한두 방울 넣어주세요.

면발 들어올리기



면을 올렸다 내리기를 5~6번 반복하세요.

찬물 넣기



라면이 다 익기 직전에 찬물 한 컵을 부어주세요.



“수고하세요”라는 말, 실례일까요?



직장인이라면 한번은 꼭 해봤을 말, ‘수고하세요.’
하지만 누구한테 쓰냐에 따라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게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직장 생활 시, 상사에게 해선 안 될 말입니다.



수고하세요

‘수고하세요’라는 표현은 보통 뒷사람이 힘들 것에 대한 공감과 위로의 말로 사용한다. 하지만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수고’는 ‘일을 하느라고 힘을 들이고 애를 씀. 또는 그런 어려움’이라는 뜻이다. 여기에는 ‘고통을 받음’이라는 부정적 의미가 함축되어 있어 뒷사람에게 사용하기에는 부적절하다.

대체어 : 감사합니다. / 힘내세요.

고생하세요

퇴근할 때, 우리는 자리에 앉아 있는 동료나 상사에게 ‘고생하세요’ 또는 ‘고생 하셨습니다’라는 말을 한다. 하지만 이 말도 뒷사람에게 써서는 안 될 표현이다. ‘어렵고 고된 일을 겪음’을 뜻하는 ‘고생’의 의미가 ‘수고’와 같은 맥락임을 고려할 때 듣는 사람의 기분을 상하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체어 : 먼저 들어가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전화 업무를 하다 보면 종종 끝인사로 ‘들어가세요’라는 표현을 쓰는 데 ‘세요’는 존대어지만 명령형으로, 자기보다 뒷사람에게 써서는 안 된다. 특히, ‘표준 언어 예절’에도 ‘들어가세요’라는 표현은 명령형이고 일부 지역에서만 쓰는 말이기 피하는 것이 좋다고 명시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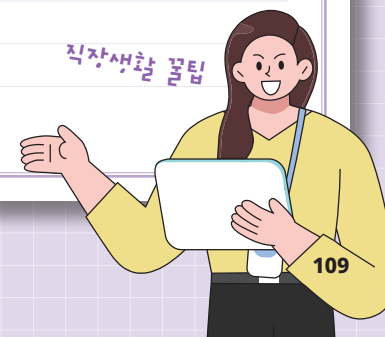
대체어 : 이만/그만 끊겠습니다.

식사하세요

삼삼오오 모여 식당으로 가는 점심시간 우리는 상사에게 ‘식사 어떻게 하세요?’와 같은 질문을 건넨다. 하지만 직장에서도 집안 어른에게 말할 때처럼 ‘잡수시다’와 같은 높임말을 써야 한다. 다만, 직장이나 일반 사회에서는 “점심 드셨습니까?”처럼 ‘진지’ 대신 ‘점심’이나 ‘저녁’, ‘아침’ 등의 단어를 쓰는 것이 좋다.

대체어 : 점심 드셨어요?

직장생활 꿀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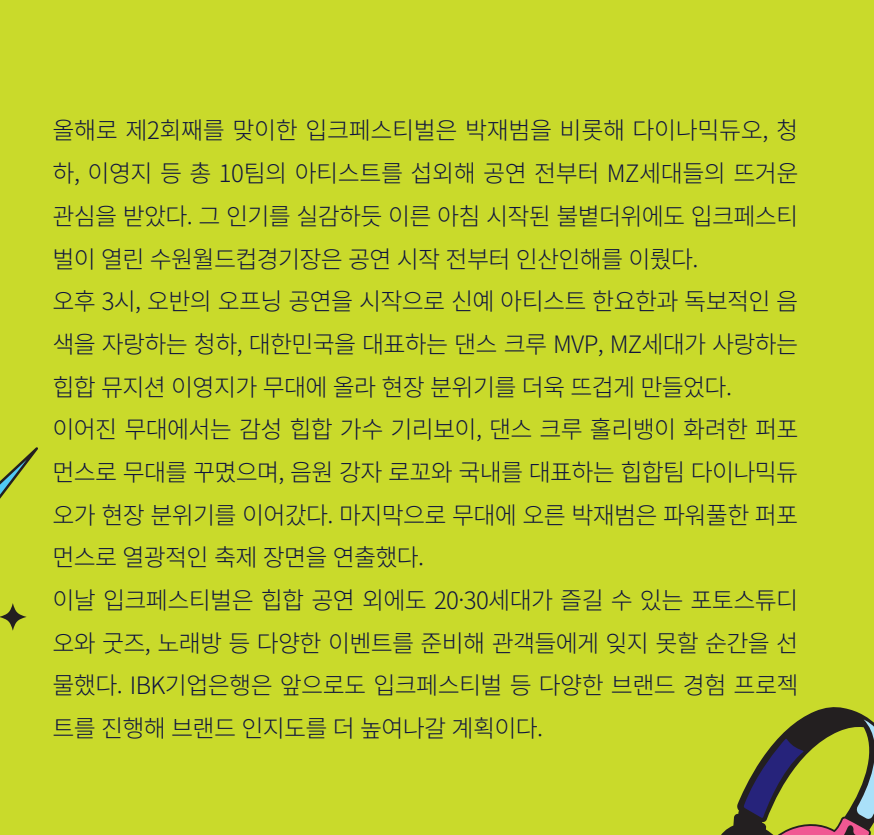


뜨거운 여름날의
청량한 즐거움!

입크 IBK FESTIVAL

IBK기업은행은 지난 6월 8일 수원월드컵경기장 보조경기장에서 대규모 음악 축제인 '2024 입크페스티벌(IBK FESTIVAL)'을 개최했다. 더 쿨하고 더 화려하게 돌아온 입크페스티벌 현장 속으로 떠나보자.

올해로 제2회째를 맞이한 입크페스티벌은 박재범을 비롯해 다이نام릭듀오, 청하, 이영지 등 총 10팀의 아티스트를 섭외해 공연 전부터 MZ세대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그 인기를 실감하듯 이른 아침 시작된 불볕더위에도 입크페스티벌이 열린 수원월드컵경기장은 공연 시작 전부터 인산인해를 이뤘다. 오후 3시, 오반의 오프닝 공연을 시작으로 신예 아티스트 한요한과 독보적인 음색을 자랑하는 청하,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댄스 크루 MVP, MZ세대가 사랑하는 힙합 뮤지션 이영지가 무대에 올라 현장 분위기를 더욱 뜨겁게 만들었다. 이어진 무대에서는 감성 힙합 가수 기리보이, 댄스 크루 홀리뱅이 화려한 퍼포먼스로 무대를 꾸몄으며, 음원 강자 로꼬와 국내를 대표하는 힙합팀 다이نام릭듀오가 현장 분위기를 이어갔다. 마지막으로 무대에 오른 박재범은 파워풀한 퍼포먼스로 열광적인 축제 장면을 연출했다. 이날 입크페스티벌은 힙합 공연 외에도 20·30세대가 즐길 수 있는 포토스튜디오와 굿즈, 노래방 등 다양한 이벤트를 준비해 관객들에게 잊지 못할 순간을 선물했다. IBK기업은행은 앞으로도 입크페스티벌 등 다양한 브랜드 경험 프로젝트를 진행해 브랜드 인지도를 더 높여나갈 계획이다.



01

‘IBK 모두다 스쿨콘서트’ 개최

전북 군산 새만금초등학교에서 ‘IBK 모두다 스쿨콘서트’가 열렸다. 이 공연을 시작으로 기업은행은 다문화가정 밀집 지역 초등학교에 문화예술 공연을 선보이는 ‘IBK 모두다 스쿨콘서트’를 본격 진행한다. 지난해 시작된 ‘IBK 모두다 스쿨콘서트’는 다문화가정 및 중소기업 근로자 자녀를 위한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공연을 통해 학생들 간의 다문화 수용성 및 공동체 의식 증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IBK 모두다 스쿨콘서트’는 교내 다문화 학생 비율을 기준으로 선정했으며 오는 10월까지 공연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 올해는 공연 지역을 경기·충청·영남·호남권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02

대한태권도협회 공식 후원 협약체결

IBK기업은행 본점에서 대한태권도협회와 태권도 종목 후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기업은행은 태권도 종목 공식 파트너로서 유소년 유망주 육성, 국가대표팀, 시범공연단 지원에 3년간 총 12억 원을 후원하기로 했다. 김성태 은행장은 “이번 후원이 태권도의 발전과 저변 확대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문화, 예술, 스포츠 분야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한민국의 국기(國技)인 태권도는 역대 올림픽 금메달 11개를 획득한 전통적 효자 종목으로, 올해 열리는 파리올림픽에서도 국민들에게 희망과 감동을 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03

중소기업 현장간담회 개최

경기남부 소재 중소기업 대표 26명을 초청한 현장간담회가 수원상공회의소에서 열렸다. 간담회에 참석한 중소기업 대표들은 고금리 지속 및 설비투자 부진에 따른 기업경영 애로사항과 기술력 우수기업 지원 필요성 등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김성태 은행장은 “중소기업의 위기극복 지원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금융·비금융 지원을 적극 확대해 나가는 한편, 중소기업의 미래 성장동력 확보와 기술력 우수기업 발굴·육성 등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진 일정에서 김 행장은 수원, 화성 지역 영업점을 찾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직원들을 격려하고 현장의 애로사항도 청취했다.



04

병역판정검사자 대상 이벤트 실시

병역판정검사자에게 최대 4만 7천 원 상당의 특별한 혜택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실시한다. 기업은행은 오는 7월 31일까지 병무청 발급소에서 IBK나라사랑카드를 신규 발급한 고객을 대상으로 i-ONE Bank 접속 시 매월 3천 원 현금 쿠폰(최대 5회)을 지급한다. 최대 1만 5천 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현금 쿠폰 발급 기간은 11월 30일까지이다. 또한 오는 11월 30일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 신규 가입 지원금 2만 원(IBK 청년금융바우처 1만 원 + 캐시백 1만 원)을 제공한다. 이벤트 관련 자세한 내용은 i-ONE Bank 이벤트 페이지와 각 지방병무청 내 기업은행 나라사랑카드 발급소에서 확인할 수 있다.



05

비대면 외환거래 플랫폼 ‘IBK FXON’ 출시

비대면으로 외환거래 및 환리스크 관리를 할 수 있는 플랫폼인 ‘IBK FXON’이 출시됐다. ‘IBK FXON’은 다수의 외국환중개사와 전자거래인터페이스를 연결해 실시간 최적호가를 제공하고 ▲기본주문 ▲간편주문 ▲일괄주문 ▲기간예약주문 등 다양한 기능도 이용 가능하다. 또한 실시간 외환시장 뉴스, 경제지표, 다양한 기능의 환율차트, 비대면 서류제출 서비스도 제공한다. 특히 비대면 서류제출 서비스를 통해 매년 영업점에 제출해야 하는 상품설명서 등의 서류를 ‘IBK FXON’에서 제출할 수 있다. 이 밖에도 수출입기업의 환리스크 관리를 돕는 Hedge-Messenger를 개선해 최적의 환헤지 전략을 제공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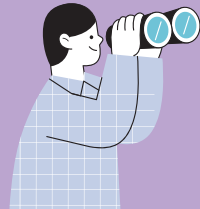
06

육군 수도군단과 자매결연 체결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육군 수도군단과 1사 1병영 자매결연을 체결했다. 1사 1병영은 군의 사기 진작과 민·군 유대를 강화하기 위해 기업과 군부대가 1대 1로 협약을 체결해 상호 간 협력을 추진하는 캠페인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기업은행은 장병 사기진작 및 복지향상 등을 위한 사업 추진에 협조하며 금융경제교육 등 장병 금융지식 함양을 위한 활동을 지원할 예정이다. 수도군단은 기업은행 직원들의 국가관 확립 교육과 부대견학, 병영체험 등 안보교육을 지원한다. 이날 협약식에 참석한 김성태 은행장은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해 불철주야 고생하고 있는 국군 장병들을 위해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다른 그림 찾기



기억력과 집중력을 높이는 다른 그림 찾기!
우리의 뇌를 깨워볼까요?



위의 두 이미지에서 서로 다른 5곳을 찾아보세요.
랜덤 추첨을 통해 선정된 5분께는 스타벅스 아메리카노를 드려요!



참여 기간 2024년 7월 1일~7월 20일
참여 방법 QR코드로 로그인해 다른 곳을 표시한 사진과 개인 정보 전송 혹은 제일 뒷장에 있는 엽서에 적어서 발송
당첨자 발표 2024년 7월 25일

다른 그림 찾기 당첨자 발표!



우○석 (6**5) 길○명 (8**8) 이○연 (5**6)
정○재 (4**0) 유○정 (8**1)

**당첨되신 분들
축하합니다!**



<with IBK> '포지 캐릭터' 4개를 찾아라!

다른 그림 찾기보다 숨은 그림 찾기에 자신 있는 분은
아래 QR코드를 통해 이벤트에 응모해주세요.



참여 기간 : 2024년 7월 1일~7월 20일

참여 방법 : 왼쪽 QR코드로 촬영 사진 전송

당첨자 발표 : 2024년 7월 25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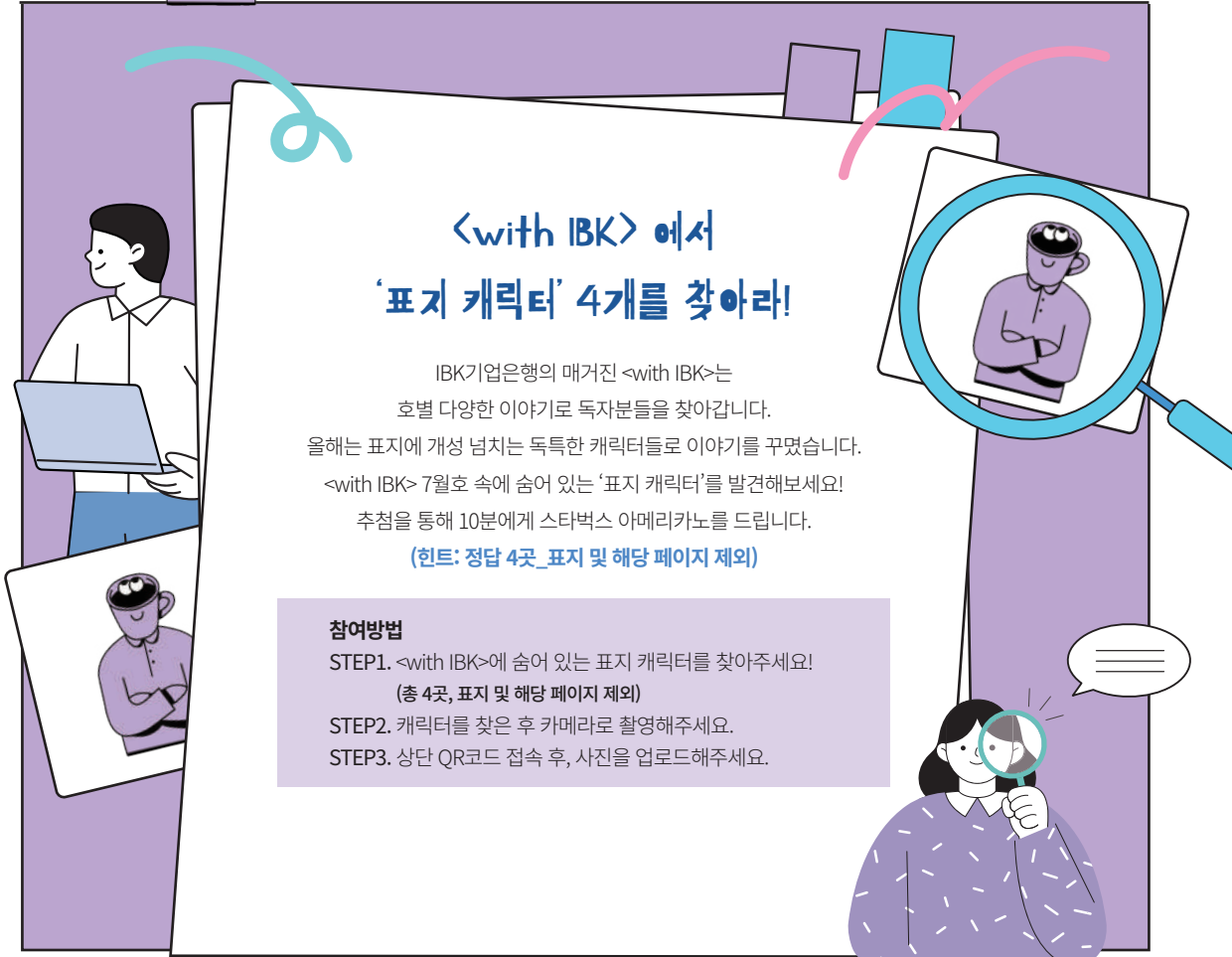
<with IBK> 에서 '포지 캐릭터' 4개를 찾아라!

IBK기업은행의 매거진 <with IBK>는
호별 다양한 이야기로 독자분들을 찾아갑니다.
올해는 표지에 개성 넘치는 독특한 캐릭터들로 이야기를 꾸몄습니다.
<with IBK> 7월호 속에 숨어 있는 '포지 캐릭터'를 발견해보세요!
추첨을 통해 10분에게 스타벅스 아메리카노를 드립니다.

(힌트: 정답 4곳_표지 및 해당 페이지 제외)

참여방법

- STEP1. <with IBK>에 숨어 있는 포지 캐릭터를 찾아주세요!
(총 4곳, 표지 및 해당 페이지 제외)
- STEP2. 캐릭터를 찾은 후 카메라로 촬영해주세요.
- STEP3. 상단 QR코드 접속 후, 사진을 업로드해주세요.



뒷면에 맛있는
여름 과일을 고르는 꿀팁이
숨어 있습니다.

“나다운 게 뭔데?”
영화나 드라마에서
한 번쯤 들어봤을 대사입니다.

클리셰 가득한 대사지만
정작 이 질문에 쉽게 답할 사람이 있을까요?

나다움을 찾는 과정은
자신의 내면 한 가운데를 들여다보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곳에 자신의 습관과 바람들을 채워 넣는다면

어느 바람에도 끄떡없는 우리가 될 거예요.



맛있는 여름 과일을 잡아라!

이것만 알면 200% 성공

여름철 더위로 뚝! 떨어진 입맛, 단번에 끌어올리고 싶으신가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더 맛있고 더 싱싱한 과일을 만나볼 수 있는 제철 과일 고르는 꿀팁입니다.

정리 편집실 자료출처 공정거래위원회

<p>수박</p>  <p>배꼽이 작고, 꼭지가 말라 있는 것 껍질 색과 검은 줄이 선명한 것 겉 부분에 하얀 얼룩이 많은 것</p>	<p>자두</p>  <p>꼭지 뾰족하고, 꼭지가 마르지 않은 것 붉은색과 노란색, 연두색이 균일하게 섞인 것 껍질에 윤기가 돌고 단단한 것</p>	<p>복숭아</p>  <p>꼭지가 갈라지지 않은 것 모양이 좌우 대칭인 것 잔털이 골고루 퍼져있는 것</p>
<p>참외</p>  <p>노란색과 흰색의 경계가 뚜렷한 것 꼭지가 가늘고 싱싱한 것 겉이 단단하고 들었을 때 가벼운 것</p>	<p>체리</p>  <p>크기가 굵고 검붉은색을 띠는 것 물렁물렁하지 않고 과육이 단단한 것 흠집이 없고 반짝반짝 윤기가 도는 것</p>	<p>망고</p>  <p>검은 반점이나 흠집이 없는 것 진한 노란색을 띠고 향이 진한 것 누르면 손자국이 남을 정도로 말랑한 것</p>

<p>포도</p>  <p>껍질에 흰 가루가 많은 것 날알이 떨어지지 않고 잘 뭉친 것 맛볼 땐 신맛이 강한 아래쪽 먹어보기</p>
--





IBK 기업은행

금융의 본질은 새로운 세상

실력 있는

기업들이

자신을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가장 진화된 금융으로 기업을 앞으로



ESG, 기업승계, 경영 전반기 맞춤형 컨설팅

IBK 컨설팅

기업과 인재를 연결하는

i-ONE JOB

중소기업의 지속성장을 위한 M&A 증개 주선 지원

M&A 생태계 조성

